



성도의 벚 4

1972

영감의 메시지

매리온 디이 행크스
십이 사도 정원회 보조



●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에 속하게 하려는 것이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생존의 근원과 유산을 똑바로 알 수 있도록 축복하자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과 또 이를 하나님께서 기필코 이루신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인간의 영원한 잠재력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영원한 원리를 활용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강화시키고 또 훈련시키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저들에게 배우고 봉사하도록 가르치며 성장하고 발전하여 남에게 자기를 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가하면 당면한 급박한 문제를 사실로 받아 들이기 하며, 하나님과의 유대를 감사하게 여기도록 하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되 우리들에게 중대한 것을 제시하시고 바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듭니다.

그러므로 교회 존립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떼의 수를 헤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먹이겠다는 것이며 전물이나 조직이나 통계 수치를 분석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자녀가 날날이 축복을 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모든 인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며 또 저들을 끔찍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을 멀리하지 아니 하셨으며 고기를 낚는 어부와 세리로 하여금 당신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의 무리 가운데 서 계실 때 당신의 성의 자락을 건드린 여자의 작은 거동도 놓치지 않으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분은 또한 선량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땅 한 입장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 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분은 아흔 아홉마리 양을 품에 안고 계시면서도 잃은 한 마리를 찾아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를 따라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제 8 권 제 4 호 순 서 1972년 4월호

■ 대관장단 메시지 : 부활과 회복 엘 엘든 태너	1
천국의 발견 스펠서 더블류 킴볼	3
순서 웬델 제이 애쉬튼	8
인생은 영원하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10
킹 폴렛트를 애도함 요셉 스미스 이세	15
정책 및 규범	20
털 칠닝 매리 브랫 페리시	21
니파이 매이블 존스 개붓	24
마가의 친구 매리 엠 카든	26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것 매리온 디이 행크스	29
질의 응답 : 오우 레실 스톤,	
알버타 에이치 크리스챤슨, 부르스 아아르 베콩키	31
주의 전에서	34
티 티 에스	39
사랑의 흔 릴튼 아아르 헌터	40
악을 용납함	43
두 째번 기회 조셉 털頓	44
■ 선교부장단 메시지 박 재암	46
내외 소식	47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2년 4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제81호

편집겸
발행인 : 엘 에드워드 부라운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 가 : 1권 100원

1년 (송료포함)

국내 800원

국외 선박 5불

항공 7불

표지 설명 : 부활한 그리스도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모습.
뒷표지는 예수를 매장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무덤 사진.

대 관 장 단 메 시 지

부 활 과 회 복

엔 엘든 태너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제이보좌



●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기념한다는 뜻에서 사월은 참으로 역사적인 달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말일에 다시 주의 왕국과 교회를 회복하여 주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회원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전 1년 4월 6일에 태어나셨다고 들 모두 믿고 있읍니다. (교성 20:1 참조)

구세주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 3:16)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비록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

에서 운명을 하시며 그의 아버지께 고난의 하소를 전하셨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고난으로 인하여 큰 고통과 슬픔을 끝까지 견디셨으나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을 호흡한 모든 생명체의 승리를 약속하는 순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나는 우리들이 모두 저 유명한 시인 찰스 가브리엘이 노래한 그 의도에 동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주 내리신 큰 은혜에
나 당황하네. 이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큰 사실을 알 때

심히 떨리네
오 나를 사랑하여 죽으신
그 일 놀라운
일 일세
주님의 업적은
훌륭하셔라. —찬송가 114장—

나는 과연 우리들이 자주 주님의 부활과 교회의 회복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대한 의미를 온전히 깨닫겠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 개개인이 속죄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전 인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계획에 쫓아 인류 존속을 위하여 아담이 범법 했고 그 범법으로 인하여 사망과 무덤이 비롯되었으므로 속죄 즉 대속과 사망의 사슬로부터 인간을 구제해야 한다는 요구와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이었읍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류는 무덤에서 구제되었으며 주는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을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은 물론 훌륭한 것입니다만 주는 우리에게 승영과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자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회복해 주셨으며 이 교회는 주가 성도라 일컬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와 침례와 권능있는 자의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의 가르침을 전하실 뜻으로 사도들을 불러 조직하셨던 교회와 똑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원이 되고 또 그 안에서 말일에 계시되고 회복된 온전한 복음을 배울 수 있으니 우리는 참으로 축복받

은 사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또 우리는 모두 그의 영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다행한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 (모세서 1:39)

그러나 이러한 일을 알고 교회의 회원이 됨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복음의 원리에 쫓아 생활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실한 모두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배워 그 뜻대로 살도록 해야 하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 22:37, 39)고하신 크고 첫째되는 계명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위의 두 계명을 늘 지킬 수만 있다면 그밖의 다른 모든 계명을 받아 들여 그대로 살 수 있을 것이며 이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그 위에 더하여 지리라.” (마 6:33)고 하신 말씀의 참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두 사월에 이루어 졌다고 하는 사실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은 우리가 무덤을 극복하는 일을 가능하게 했으며 교회가 조직되므로서 구원의 의식과 법에 쫓아 사는 성실한 모든 사람이 영생과 승영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천국의 발견



스펜서 더블류 킴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서리

● 친애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이미 천국의 창문을 어둡게 하는 중한 죄에 관하여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부도덕한 것이 만연되는 것을 보고 전율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를 주변에서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이혼을 하고 결과적으로 가정이 파괴되며 범죄아가 늘어나고 있는 사태를 볼때에 그저 아연할 수 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적어도 모든 것이 다 죄악이요 사악함이요 순리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두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초상화를 준비할 때의 경험담을 여러분께는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읍니다.

신전 사중에는 큰 의자를 반원형으로 정리해 둔 십이 사도 정원회실이 있읍니다. 이곳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중대사가 논의되는 곳입니다. 이 방벽에는 관리 역원들의 초상화가 죽결려 있읍니다. 내가 이 방에 들어설 때는 내가 유대를 함께 하는 위대한 그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흠토의 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 얼마 후에 나의 초상화를 준비하여 그 벽에 걸라는 교회 대판장단의 지시가 있읍니다.

리 그린 리차즈 형제가 화가로 지명되었고 우리는 즉시 작업을 차수했읍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화실에 준비된 높다란 결상에 올라 앉아 이미 벽에 걸려있는 많은 다른 형제들처럼 좀 맵시있게 보이려고 무언히

애를 썼읍니다. 페인트와 붓과 팔레트를 갖추어 놓고 화가는 나의 얼굴과 캔バス로 눈을 번갈아 주며 작업을 계속했읍니다. 그후로 나는 여러 번 화실에 들렸읍니다. 그후 몇 주만에 초상화는 완성되었고 대판장단에 먼저 보여 드린 다음에 나의 아내와 딸에게도 보여 주었읍니다.

그러나 그 초상화는 불합격이 되었고 나는 초상화를 다시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읍니다.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시도되었고 그 각도를 정하는데 여러 시간을 보냈읍니다. 마침내 그림이 거의 완성되기에 이르렀읍니다. 이 날도 평상시와 조금도 다름없는 아주 분주한 날이었읍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그야말로 비몽사몽간이었는데 어쨌든 나 자신은 이 세상에서 멀리 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나를 바라보던 화가는 나의 그 아득한 눈길을 도저히 캔バス에 읊질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가 팔레트와 페인트와 붓을 한쪽으로 밀어 놓고 팔짱을 끈채 나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드디어 나는 그가 묻는 소리에 그 어떤 꿈같은 것에서 깨어났는데 그때 그의 질문은 이러했읍니다. “김볼 형제님, 형제님께서는 천국을 보신일이 있으십니까?”

나의 주저없는 대답은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던 나만큼이나 그를 놀라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소 리차드형제, 분명히 보았오.” 나는 이 화실로

들어오기 전에 천국의 모습을 헐끗 보았오.” 나는 그가 일시에 긴장을 확 풀 그런 자세로 놀라움의 눈으로 나를 똑 바로 쳐다본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소 한시간쯤 전이오, 길 건너편의 신전 안에서 였오, 인봉의 방문이 이 세상과 단절되면서 그대로 두 텁고 흰 벽만 의식되었오. 그러더니 빛과 따스함과 휘장과 가구와 모든 것이 성스럽고 정연하다고 느껴지면서 양쪽에 불은 거울이 차례로 하나의 그 모습을 영원히 반사해 주는 것이었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아름다운 색깔의 창문에서는 평화스런 밝음이 스며드는 것이었오. 방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흰 옷을 입었고 화평과 조화와 힘써 참여하겠다는 기운이 맴돌았다가. 준수한 젊은 신랑과 아름다

운 신부가 단 양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나는 전등으로 이 땅과 해의 영광의 세계를 잇는 천국의 의식을 집행했다오. 그곳에는 정결한 마음과 천국이 것들어 있었오.”

“영원한 결혼 의식이 끝나고 축하의 인사가 나누어 지고 있을 때 만면에 기쁨의 미소를 담은 신랑의 아버지는 내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오. 킵 볼 형제님, 저와 아내는 그저 평범한 시민으로 뭐 이렇다 할만한 업적이랄 게 없읍니다. 그러나 가족은 모두 큰 긍치를 갖고 산답니다. 이 아이는 우리의 여덟 자녀의 막내 아이인데 아이들이 모두 거룩한 이 신전에서 신전 결혼을 했답니다. 모두들 오늘은 이 막내 아이의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내를 동반하고들 왔읍니다.

저희집 여덟 자녀가 모두 신전에서 결

혼을 한, 이를테면 우리는 행복한 세월을 누리고 있읍니다. 아이들은 모두 교회에서 맡겨진 직책을 성실하게 이행 하며 살고 있으며 위에 아이들은 의로운 자녀를 갖기 시작했읍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뜻밖의 손을 내려다 보았오. 그의 거친 피부를 보면서 나는 나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오. ‘여기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하게 이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업적이라구요?’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이야기를 했오.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형제께서 가장 큰 업적을 이룬 분이라고 생각했읍니다. 혹 형제께서 백만장자가 되었거나 배지주가 되더라도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는 있읍니다. 형제께서는 의로운 삶을 살며 자손을 기르며 저들에게 신앙과 의로운 일을 가르치므로서 이 세상에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하게 이행 하셨읍니다. 참으로 형제께서는 크게 성공을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읍니다. 나는 그 초상화를 올려다 보았읍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는 이야기를 계속했읍니다. “그래요, 나는 여러번 하늘의 모습을 보았오,

“한번은 멀리 있는 어느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었다오. 그리하여 토요일 오후 그 스테이크 부장 백을 우연히 들리게 되었었오.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그 스테이크부장의 아름다운 부인이었는데 팔에는 얘기를 안고 있었읍니다. 그 부인은 정말 하녀나 가정부가 절대로 펼 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지요.



뭐 모델도 아니고 사교계의 인물도 아니었오. 머리는 곱게 빗질이 되었고 복장의 선택도 훌륭했으려니와 입은 맵씨도 훌륭했오. 얼굴에는 미소를 머금었고 연령이 어렸지만 그 모습에서는 성숙한 어머니로의 자태와 삶에 대한 소망의 빛과 기쁨이 감돌고 있었오.

“그 집은 작았어요. 우리가 인도되어 들어간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듯한 방은 좁았고 방 가운데는 긴 테블과 결상이 여럿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이웃으로 보내고 우리에게 내어 준 방에서 몸을 풀고 우리는 다시 거실로 나왔오. 그 부인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오. 스테이크부장인 그의 남편이 일파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밖에서 혹은 농장 일을 듣거나 놀다가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을 자랑스럽게 소개해 주었다오.

“저녁 상이 마치 요술처럼, 그렇게 시간을 맞추어 준비가 되지 않겠오.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했는데 정말 그집의 작은 손들은 조용하고도 익숙하게 움직인 것이었오. 아이들은 모두 저마다의 임무를 잘 배운 것 같았오. 저마다 맡은 임무가 다른 것 같았오. 한 아이가 재빠르게 테블보를 떠었지요. 그 다음엔 칼과 포크와 숟가락을 놓았오. 그 다음엔 또 다른 아이가 큰 음식 그릇을 날라왔오. 그리고 또 그 다음엔 우유병과 접시에서 군 맛 있는 빵 접시가 정리되었고 치이즈와 파일 그릇도 식탁위에 정열되었오.

“한 아이가 결상을 돌려 놓고 무릎을 꿇자 모두들 정연하게 무릎을 꿇었오. 작은 남자 아이가 기도의 지명을 받았지요. 그 아이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가족을 축복해 달라고 간



구하고 학교 공부를 잘 하게 해 달라고 하더니 선교사와 감독을 축복해 달라고 합디다. 그러더니 그 아이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특히 자기 아버지가 교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충분한 말씀’을 전해 달라고 기원했다오. 또 자기 형제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서로 서로 치하고 친절하게 대하게’ 해 달라고도 기도합디다. 끝으로 그 아이는 이 추운 겨울에 태어 나게된 들판의 어린 양 새끼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도 했오.

“그 작은 아이의 음식 축복 기도가 끝나자 그릇 열세개가 차례로 음식으로 채워졌고 곧 저녁이 시작되었오. 뭐 음식이 신통치 못하다느니 하는 식의 변명이나 설명은 한 마디도 없었오. 또 가정이나 자녀가 생활 형편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평이 없었오. 대화는 모두 건설적이면서 유쾌하고도 즐거운 것이었고 아이들의 태도도 훌륭

했오. 부모는 늘 조용하고 엄숙하게 아이들과 대하는 것이었오.

“오늘날에 와서는 모두들 가족 계획이다 산아 제한이다 하여 법석들을 벌고 한 가정에 그저 극히 이기적이고 또 독선적인 아이 하나나 둘을 기르기가 일수고 반면에 온갖 사치스러운 것으로 집을 장식하고 많은 가정 부와 하녀를 두되 가정은 이미 파괴되어 생활은 가정밖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현상이므로 견실하고 건전한 대가족과 함께하며 저들의 소탈하고 부드러운 조화의 분위기에 접하게 되면 저절로 힘이 나는 것 같다오. 그리하여 우리는 그 가정의 소탈함에 심취되어 결상이 모두 낚아찌그리지고 카텐의 천이 허옇게 바랬으며 마루에 깐 용단은 온통 떨어졌어도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은 쓰지 않게 되고 집이 작은 것도 또 침실이 비좁은 것도 개의치 않게 됩니다.”

“그렇소 리차즈 형제. 나는 그날



천국을 보았고 그후로도 여러 곳에서 천국을 보았다오.” 그는 그림을 그릴 생각은 던져버린 사람처럼 우두커니 서서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서 있더니 이야기를 더 계속해 달라는 듯한 얼굴로 나를 다시 쳐다 보았습니다. 나는 그 요청에 이끌려 또 다른 천국의 방문을 들려 주었습니다.

“이번엔 인디안 보호지역에서의 일 이오. 거의 모든 나바호 인디안 부인이 다산적인데 유독 이 아름다운 레이멘인 부인에게는 결혼 수개년이 지났어도 태기가 없었오. 남편은 직장도 좋았오. 이들 젊은 부부가 교회 회원이 된 바로 후에 하루는 주말 쇼핑을 나갔었오. 이들이 가져온 시장 바구니 속에는 모두 전전한 음식 뿐이었오. 말하자면 그 속에 맥주나 커피나 담배 같은 것은 찾을 수가 없었오. —‘포스툼을 좋아하나요?’라고 우리가 물었더니 저들은 이렇게 대답하여 우리 가슴을 울리는 것이었오;

‘예 평생을 맥주와 담배와 커피로 살았죠. 그러나 물론 선교사의 말씀을 듣고 지혜의 말씀을 알았고 포스툼의 설명도 들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포스툼이 아이들에게 좋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아이들도 좋아하게 되었읍니다.’

“아니 아이들이라니요?” 우리 일행은 이구 동성으로 물었읍니다. “우리는 형제가 자녀를 갖지 못했다고 아는데……” 이래서 결국 저들은 나바호족의 고아 열 여덟명을 집에 데려다가 기르게 된 내력을 모두 들려 주게 되었오. 이들의 집은 췄지만 이들의 마음은 더욱 넓었오. 이타심,一個人가 필요로 하는 유덕의 모체! 이 훌륭한 부부의 모범은 극히 이기적이 고 허황된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의 등불이 될것이오.”

나는 화가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천국은 통나무 집일 수도 있고 천막일 수도 있으. 리챠즈 형제, 천국은

곧 우리가 만드는 것이오. 나는 내 결상으로 돌아가려 했읍니다만 그는 전혀 관심을 가지려 하지지를 않았읍니다. 그는 그냥 그대로 서서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하와이 라이에 있는 아름다운 신전 안에서 있던 일이오. 마침 선교사를 위한 모임을 갖고 있었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느끼는 모임이었오. 복음 전도의 임무를 맡은 이들 선교사는 긴증할 차례를 기다리면서 조바심들을 하고 있었오. 마침내 키가 작은 일본 선교사의 차례가 되었오. 그는 교단 앞으로 나가 그대로 경건하게 무릎을 꿇더니 복음에 대한 감사의 간증을 마치 하늘의 영을 쏟아 내리듯 심혈을 기울여 전하는 것 이었오.

“리챠즈 형제, 그 작은 방에 천국이 드리워 있었오. 바로 그 곳, 태평양의 낙원인 그곳, 그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모인 자리에 말이오.”

나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천국은 나의 가정에도, 말하자면 리챠즈 형제! 우리가 가정의 밤을 가질 때 그곳이 하늘이 되오. 여러 해를 두고 우리의 가정은 자녀로 가득했고 아이들은 저마다 번갈아 가며 열심히 노래도 하고 깨임도 하며 신앙 개조를 외우고 서로 서로 이야기도 나누며 신앙을 굳게 해 주는 복음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곤 했다오.

“나는 구라파에서도 하늘을 발견했오.”

“보겔 장로는 신앙이 대단한 독일의 개종자였오. 그는 선교사가 되기를 그토록 갈망했지만 부모는 끝까지 반대를 했오. 어느 사려깊은 미국 성도가 매달 그에게 선교 비용을 보내

주제 되었오. 그는 기쁨으로 선교사업에 임했고 행복하게 일년 반을 보냈으나, 그러던 어느 날 선교 자금을 보내 주던 분의 부인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선교 자금을 보내 주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오.

“보겔 장로는 이 슬픔을 혼자서만 간직하고 열심히 기도로 해결 방안을 찾으려 했오. 그와 그의 동반자인 미국 청년 스미스 장로가 우연히 병원 앞을 지나다가 재정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오. 그 다음날 그는 시간을 내어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더니 일찍 취침했오. 이유를 물었더니 좀 피곤하다고 밖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오. 며칠 후 동반자인 스미스 장로는 동반자인 보겔 장로의 활동에 반창고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것에 관해 물어도 대답이 별로 신통치를 못했오.”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활동에 붙여지는 반창고의 내력은 어쩔 수 없이 들어나야 했고 그는 마침내 동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고 말았오! 알겠나 자네, 미국에 계신 나의 후원자가 돌아가셨단 말일세. 그러니 도움은 끝났지 뭘까. 부모님께서는 아직도 완강하게 나의 선교사업을 반대하고 계시고 해서 나는 하는 수 없이 병원의 혈액 은행을 찾아가 피를 팔아서 나의 선교사업을 완수하려고 했던 걸세!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값진 피를 팔아서 영혼을 구하려 했던 것이오! 자 그것이 바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께서 보여 주신 모범이 아니겠오?”

“화가 형제, 형제는 하늘을 믿소?”
내가 이렇게 물었읍니다. “그렇소 하-

늘은 있으오. 하늘이란 장소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분위기 내지는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으오. 하늘은 바로 가정이며 가족이오, 또한 그것은 이해와 친절이며 상호간의 사랑이고 혼신적인 봉사이기도 하오. 하늘은 조용하고 생동하는 것이며 개인 개인의 희생이며 철저한 희생이기도 하오. 또한 하늘은 타인을 위한 끔찍한 정성이기도 하오, 하늘은 또한 위선이나 꾸밈이 없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온전하게 사는 길이오, 하늘은 나의 유익을 탐하지 않는 것이오. 우리는 이 하늘을 찾아 하늘의 기쁨을 풍족하게 누려야 할 것이오. 그렇소, 리차즈 형제, 나는 여러 모양의 하늘을 보았오.”

나는 자리에 바로 앉아 포즈를 취했읍니다. 화가는 빠렛뜨와 붓과 페인트를 집어 들더니 한술처럼 조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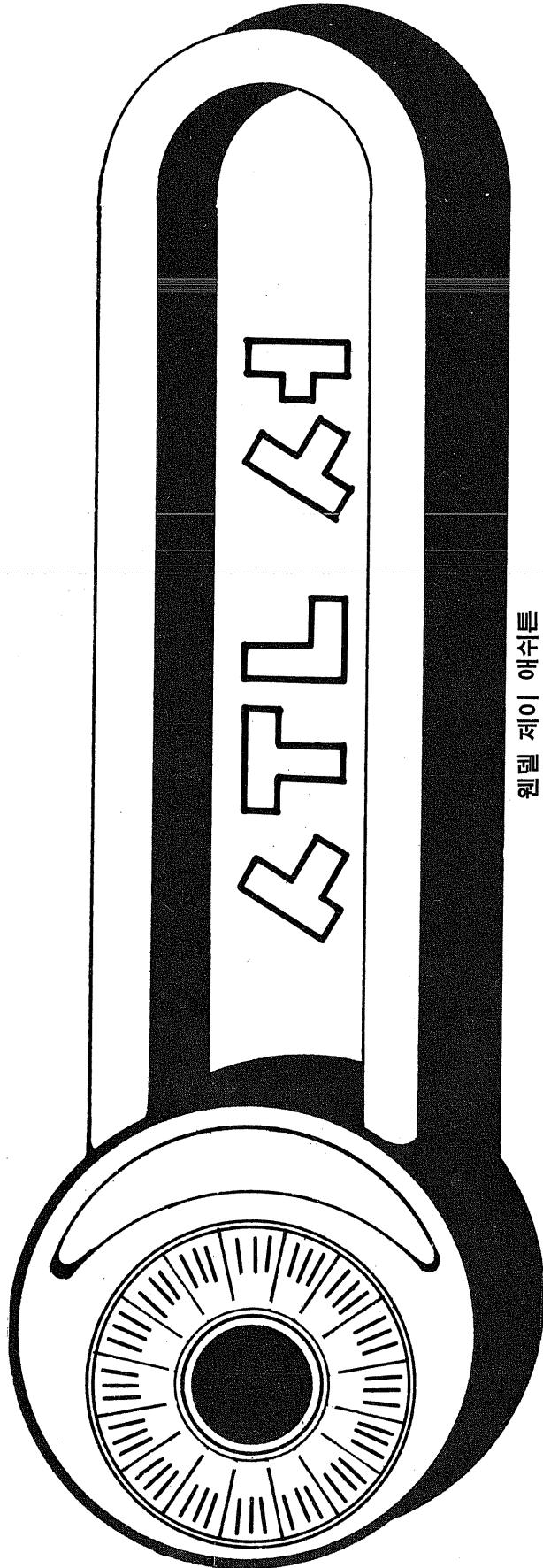
게 이렇게 이야기 했읍니다. “그럼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초상화는 콜트 레이크 신전 사층, 십이사도의 회의실 벽에 다른 위대한 형제들의 초상화와 함께 걸리게 되었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에게 의롭게 살며, 가족을 사랑하되 온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가정을 질서로 다스리도록 가르칩니다. 복음은 인간의 보잘것 없는 성품을 온전한 상태로 바꾸어 줍니다. 복음은 진정한 삶의 길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합당하게 생활하기만 하면 우리는 신성에 가깝게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구세주의 참된 복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구하면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 나는 어제 테니스 경기를 조금 힘에 겪도록 하고 나서 나의 웃장 앞에 놓인 결상에 앉아 웃장 자물쇠의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 자물쇠는 아들의 것하고 비슷했고 다이얼의 한 부분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끗이 있는 그런 것이었다.

나는 땀에 젖은 피곤해진 손 가락으로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다. 먼저 6에 맞추고 그다음엔 38 그리고 28에 맞추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물쇠는 열리지 않았다.

나는 다시 돌렸다.

그런데도 자물쇠는 굳게 잠긴 채로다.

마치 불독의 잇빨로 꽉 물고 있는 것 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잠겨 있는 것이었다.

전에는 이런 일이 한번도 없었다. 나는 샤워를 어서 끝내고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다시 나의 사무실로 나가야 했다.

나는 다시 다이얼을 돌리기 전에 도대체 무엇을 잘못 해서 그 자물쇠가 열리지 않았는가를 잠시 생각해 보기로 했다. 조금 생각하다가 이유를 규명한 것이다. 다이얼의 번호를 사뭇 꺼꾸로 돌렸던 것이다. 나는 6번 38번 28번의 순서로 돌렸는데 사실은 38번 28번 6번의 순서로 해야 맞는 것이었다.

다시 다이얼에 손을 댔다. 자물쇠는 여느때와 같이 쉽게 열렸다.

결국 문제는 좀처럼 얻기 힘든 테니스에서의 승리로 내가 조금 흥분했던 데 있었고 거기다가 급히 사무실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에서 그만 다이얼을 잘못 돌렸었던 것이다. 6을 맨 마지막에 맞춰야 하는 건데 맨 먼저 맞췄던 것이다.

승리에 도취되거나 곤경을 겪는 때에, 아니 이렇게 분주한 현대를 살아가자면 쉽게 순서와 순리를 잊을 수도 있다고 본다. 나는 자주 마치 자물쇠의 6번을 맨 먼저 돌렸던 것 처럼 먼저해야 할 일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먼저하곤 한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순리에 관한 위대한 가르침을 전해 주셨다. 예루살렘에서 한 두 마일 쯤의 거리나 될까? 어쨌든 예수께서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방문하셨던 일을 기억하시리라고 믿는다. 베다니는 예수님의 좋은 친구였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하다. 예수께서 저들의 집으로 들어가시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앞에 앉아 말 쯤에 귀를 기울였고 마르다는 귀한 손님을 맞아 분주하게 대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르다는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좀 못 마땅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여 나의 자매가 나 훌로 일을 하도록 버려두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나를 좀 돋도록 하지 않으시렵니까?

이때 구세주께서는 아주 부드럽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대는 꿈꾸하여 너무 많은 일에 마음을 쓴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이제 그 한 가지를 백하였으매 이를 그에게서 빼앗지 못하리라.”(눅 10:40-42 참조)고 하셨다.

마르다는 참으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채 순서를 온통 혼돈하고 있었던 것이다. 집안 준비를 하는 일을 더 중요한 일과 혼돈을 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귀빈의 방문이 더 중요함을 잊었던 것이다.

나는 우리들 둘이 저녁 초대를 받았던 집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거실의 모든 가구는 모두 흰 천으로 덮혀 있었고 우리는 딴 방으로 인도되었다. 우리는 그 집 부인이 우리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는데 보다는 가구를 흄없이 보존하는데 더 신경을 쓴다는 씁쓸한 여운을 섞으면서 그집을 나섰다.

이번 주에 우리는 우리들의 성찬식에 최근에 와서 훌륭한 이야기를 들려 준 젊은분의 어머니 백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그 젊은이는 곧 브라질로 선교사업을 떠날 차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참으로 진실하고 감동적인 훌륭한 이야기를 했다. 정말 자기를

걸려주신 부모님들께 자랑과 보람을 돌려 드린 것이다. 우리는 그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 보았다. 지금 그는 훌륭한 젊은이가 되었고 학교 성적도 뛰어나거나와 이름난 운동 선수이기도 한 것이다.

그 백에서 나는 그의 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그 젊은이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애 아버지가 저 애 한테 참 극진하게 했다우!” 그분의 말씀이었다. “나는 애 아버지와 내 딸이 이 집을 짓고 있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오. 참 애써서 이집을 지었지요. 애 아버지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 서서 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밑에서 아이들이 뭘 좀 도와 달라고 하니까 아 글쎄 페인트 솔과 통을 놔둔 채 사다리를 밟고 내려와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아빠로의 조력을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이 바쁜 중이었지만 집의 완성보다는 두 아들과 아내를 돌보는 일이 더 중했던 거였다오.”

그 집은 그 아버지의 인도로 모든 것의 순서를 어김없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순서를 운영하여 하지 않고 벌어지는 일에 끌려 다니기도 하고 교회의 직책을 기회로 아내와 자녀와 더불어 누려야 하는 값진 기회를 외면하기도 한다.

몇년 전 어떤 귀부인 한 분은 우리 지역의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인 사랑하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 분은 교회 일로 이만 저만 분주한게 아닙니다. 제발 진정한 기독교인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아 주었으면 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자기의 교회와 직장과 이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기억하는 가운데 순서를 그르치지 않는다면 더 큰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인생은 영원하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십이사도 정원회

●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건하면서도 행복한 대회에 함께 하고 있으며 성령의 감화와 경전의 가르침으로 우리들이 모두 한 하나님의 영의 자녀라는 깊은 확신과 기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영특한 다른 영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의 한 조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출생이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모두가 마지할 사망이 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출생은 깊은 잠이며
망각에 불과하다.
영혼이 우리와 함께 일어서며
우리의 삶은 별처럼 빛난다.
그리고 그 별은
어느 곳에서나 지고
또 멀리서 솟아 오른다.
모두 다를 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모두를 벗어 던진 것도 아닌채,
우리는 영광의 구름을 지나오며
우리의 집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윌리암, 워드워스
“불사불멸의 암시”

영원한 존재로서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온 세계를 골고루 돌아본 나는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특별히 훌륭하다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평화를 원하며 스스로 훌륭한 이웃이 되기를 원하고 가정과 가족을 사랑하고 삶의 표준을 높이 끌어 올리려고 노력하며 의와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며 본성이 아주 착합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저

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나는 주님의 겸허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을 마음에 담아갖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높은 곳에서도 만났고 낮은 곳에서도 만났습니다. 나는 저들의 가정을 방문하기도 했고 일하는 들판으로 찾아 가기도 했으며 작은 농장과 가게에서 만나기도 했고 고속도로나 비행기 안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나는 또 저들을 크고 작은 여러 모임에서 만날 축복을 갖기도 했고 작은 예배당에서 함께 만나기도 했으며 코련의 모스크에 있는 침례 교회에서 자리 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거듭 이야기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즉 나의 형제와 자매들은 특별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겸허한 종으로서 나는 저들에 대한 마음의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날 날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혼탁하고 죄 많 은 유혹과 고난으로 가득찬 이 세상을 여

행하노라면 세상의 무상과 덧없는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에 마음이 속연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을 잃으면 사람은 누구든지 슬픔에 젊기 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게도 됩니다. 감사함이라 함은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는 지식이 확인시켜 주는 고마움입니다. 위대한 복음의 계획에 대한 감사함도 있습니다. 이 복음의 계획은 만인에게 값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인생과, 부활도 우리를 영원으로 연결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가르침에 대한 감사도 아울러 갖습니다.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또 그분의 사명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는 세상의 빛이시며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사 우리로 하여금 따르게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하리라……” (요 11: 25—26)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라고 옛 선지자 용이 물은 일이 있습니다. (욥 14: 14 참조) 나의 친구였던 에베레트 덕센 상원의원이 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용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말을 남긴 일이 있습니다. “영원의 문턱에 선 사람 중에서 산 차와 죽은 차를 잘라놓는 저 장막의 뒤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은 자가 있겠는가?”

“사람으로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무덤 진너편 저 쪽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이제 서서히 인생의 여로가 끝나고 있다는 이상스런 느낌을 갖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영원한 인간의 여로와 그 여로에서 겪게 될 것이 무엇일까로 골똘한 사념에 사로 잡히지 않을 자가 있겠는가?”

“여러 세기 전에 온갖 재물의 축복을 받고 살다가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재앙과 고난을 받아야 했던 용은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더불어 영



원히 인간의 가슴에 메아리가 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던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 날 것인가?’라고. 부활절이 되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을 기념하며 일찌기 용이 가졌던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 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연결된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애를 쓰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우주가 계획된 것이라면 반드시 그것을 계획한 분이 계실 것이다. 신비스러운 이 세상의 삼라만상과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의 질서와 그 질서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사람이 죽으면 과연 다시 살아 날 것인가?’ 분명히 사람은 다시 살아나며 마치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떨이 그 궤도를 돌아 운행하듯, 또 밀물이 지나면 썰물이 오듯 그렇게 분명히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1965년 11월 8일자 124페이지)

그렇습니다. 인생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여행을 마친 뒤에도, 비록 우리들 스스로가 영원의 진로를 바라 보지 못하게 되는 데라도 분명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자주 우리들은 썩어 없어질 것에 지나친 애착과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세상의 온갖 재물은 우리가 이 학교라고 일컬어야 할 세상에 사는 동안만 우리들의 주변에 장식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금이나 은이나, 가죽, 토지, 가죽 등등의 세상 재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동안 머무는 처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먼저 승영에 필요한 교훈을 배우고 주님의 복음 계획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망이 닥치는 것입니다만 진정한 뜻에서 우리들에게는 사망도 없으며 영원한 이별이란 것도 없

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 부활에 관하여 누누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세주의 영광스런 부활이 있는 직후에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마태 27:52-53)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뱃모 섬에서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계 20:12)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밖에도 신 구약을 통해서 부활에 관한 기사를 인용하자면 수를 헤아릴 수 도 없이 많습니다.

영의 세계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이 세상과 저 세상간의 장막이 아주 얇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미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들이 사랑했던 분들이 우리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영의 세계는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입니다.” “과연 영이 잘 조직된 이 세상의 담장을 넘어 멀리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영은 이 땅위에 영주해야 하는 목적으로 이곳에 보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육신을 떠나면 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돌아갑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이해하도록 준비되는 것입니다.물론 그것은 그렇게 되도록 준비하신 주님의 뜻에 입각한 것이며 주님께서 허가 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 영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있게 됩니다.....”(부리감영, 저널 오브 디스코스 제3권 357-369페이지 참조)

그렇습니다. 진정 생명은 영원합니다. “비록 오늘 하늘이 음울하고 어두워도 내일이면 다시 푸르리라.
구름이 모두 걷히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의 빛이 강렬하게 비치리”
(작자 미상)

죽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미국무성 군복이었던 피터 마샬 박사의 말씀에서 죽음의 모습을 찾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집에 나이 어린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불치의 병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달을 두고 그 아이의 모친은 정성껏 아들을 잔호했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점차로 그 어린 아들은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얼마 안 있으면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 소녀의 모친이 아서 왕과 원탁의 기사에 관한 이야기 책을 머리맡에서 읽어 주었습니다. 한동안 조용하게 자리에 누워 있던 그 아이는 마침내 그의 마음 속에 오랫동안 담고 있던 질문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엄마, 죽는데 아주 힘이 들고 아플까?” 엄마의 눈에는 곧 긁은 눈물이 맷혀 불 위로 흘러 내렸습니다. 그녀는 뒹기듯이 자리에서 뭘 좀 가져와야 겠다는 듯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되겠느냐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케네드야! 네가 어렸을 때 밖에서 아주 재미있게 놀고 안으로 들어와서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더러워진 옷을 벗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엄마 품에 안겨 잠이 들었던 일 생각나니? 다음 날 아침에야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는 어느 결에 네가 네 침대 위에 잘 뉘어져 있는 걸 알고는 깜짝 놀라곤 했지. 밤에 아빠가 너를 번쩍 안아다가 네 방 네 침대 위에 누이신 것이었단다. 케네드야, 죽음이란 것도 그런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속하게 된 어쁜 방에서 어느 아침에 눈을 비비고 깨어 나는 것과 같은 말이다.” 소녀은 빛나는 눈으로 엄마를 올려다 보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 사라졌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마음이 신뢰와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 그는 그후로 다시는 죽음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그후 얼마 후에 그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조용히 잠들고 말았습니다. 죽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캐더린 마샬 지음. 베드로라 불리는 사람 참조 [뉴욕 소재 맥그로우 힐 출판사 1951년판] 272—273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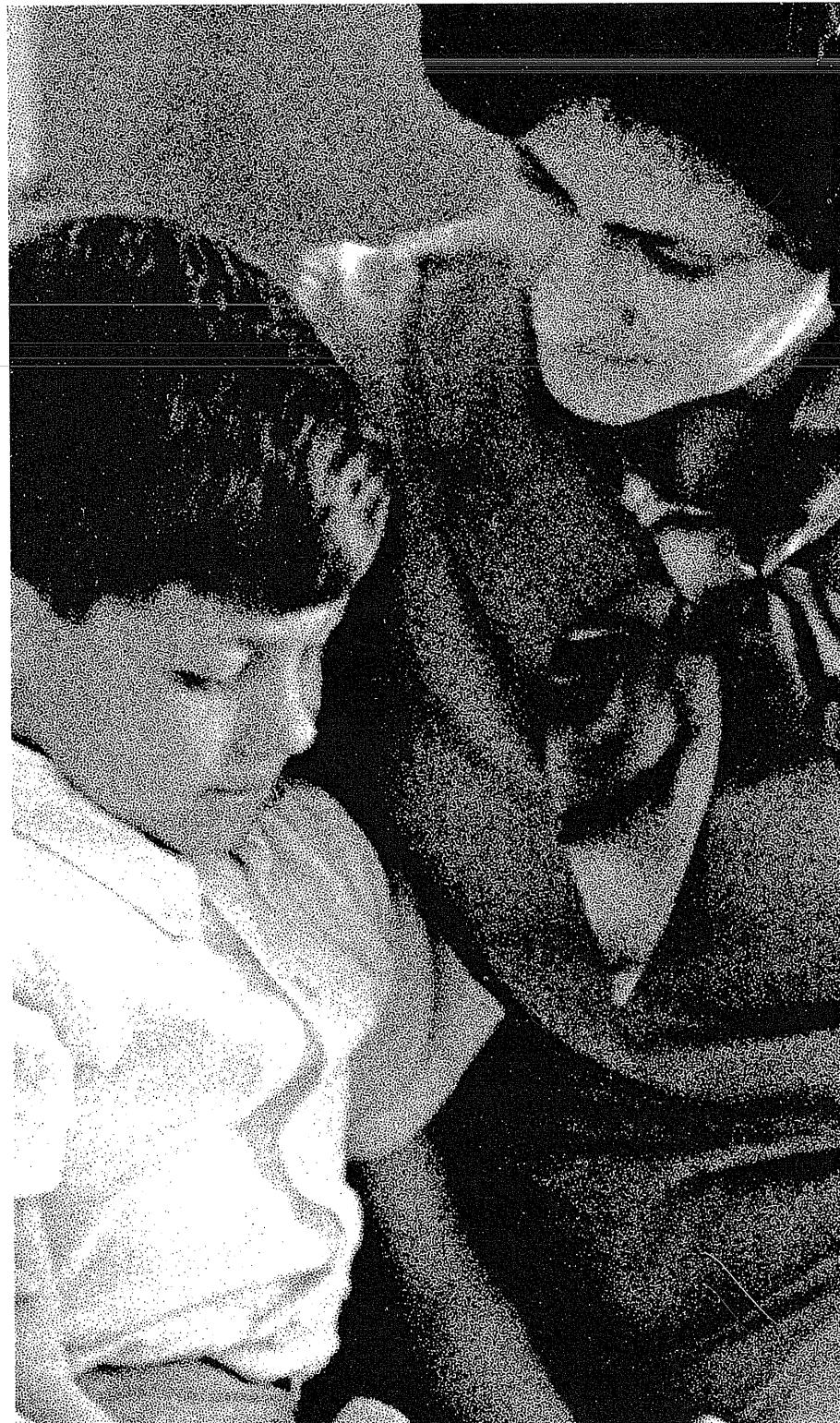
그렇습니다. 인생은 영원합니다. 죽음이 곧 최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활절에 가장 영광스러운 역사가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번 감사한 마음으로 간증을 드렸습니다만—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압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은 사시는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잘 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삼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슬픔에 젖은 여인이 무덤가에서 흐느끼고 있을 때 천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 (눅 24:5-6) 이 보다 더 분명한 일이나 증언을 우리는 역사에서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 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에 과연 이보다 더 분명하고 명료한 설명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관한 성리의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우리는 예배와 신앙도 없는 것이며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혼란과 암흑의 굴레와 공포를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구세주가 세우신 목표에 다다르자면 아직은 요원한 자리에 있읍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목표 자체를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울러 빛을 향하여 전진을 계속하겠다는 노력도 중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그의 탄



생이나 사망이나 부활이 없다면 완성의 길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온 백성이 주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주가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며 주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고 만인의 사망의 떠를 끊으신 주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가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세주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받아들여 그 뜻대로 살며 주의 원하시는 대로 생활하므로서만 우리가 우리를 결박하는 의심과 무지의 떠를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고 다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간단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를 배워야 하며 이로써 영원을 두고 무한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뜻에 따라 살도록 우리 자신을 면제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세주를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로 모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가 허가하신 사랑을 이웃과 나눌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이 풍성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갈릴리의 인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정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그만큼 타락하는 것이며 이 세상을 극복하려는 싸움에서 패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 하십니다. 주는 주의 제자와 우리를 모두에게 거듭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 14:1, 14, 18, 27)

우리는 어린 아이의 기도속에서도 주의 영을 느끼며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서 안온한 신앙의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주를 직접 대면하신 이의 거

룩한 간증을 통하여 우리들이 구세주의 실재를 알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값진 은사입니다?

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가 부활하신지 천 구백 년이 지난 이 부활절 아침에 나는 구세주가 살아계시다는 간증을 여러분께 엄숙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나셨으며 우리도 그와 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는 부활하시며 생명이십니다.

그는 부활하신 후에 구대록의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엄숙하다고 까지 느끼는 현대 경전의 기록에 보면 그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또 다른 양떼”와 더불어 영광스런 삼 일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신 대륙에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와 함께 하셨던 시드니 리그든에게 1832년 2월 16일에 보여 주신 시현의 내용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넣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니라.”(교성 7:22-24)

그렇습니다. 친구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이십니다. 그는 살아 계십니다. 그는 사망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다시 오실 것이며 성경에는 이에 관하여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실 것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사도행 전 1:11)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이미 이 땅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시어 영광을 입으시고 승영의 길에 오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이 땅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820년에 어린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 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창조주이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날에 이 땅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로 요셉 스미스에게 소개되었으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에게서 들으라!” (요셉 스미스서 2:17)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이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일은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기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는 겹혀하고도 엄숙한 마음으로 이 간증을 세상에 전합니다. 이 메시지는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전하고자 하는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삼백만 성도가 엄숙한 마음으로 똑같은 간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방방곡곡에서는 수천의 선교사들이 중요한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자비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인류의 구속주이시며 세상의 구세주 이시고 이 세상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어 주시는 중보자 이십니다. (요한 1서 2:1 참조)

오늘날 이 만명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의 선교사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주—물론 교회의 삼백만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을 전하셨고 예수는 인류를 방문하셨으며 부활은 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위에 언급한 모든 사람에 전하는 간증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아울러 나의 간증의 말씀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물론 사상의

정수

킹

폴렛트

를 애도함

요셉 스미스 이세(1805—1844)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초대 대관장



교회 고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킹 폴렛트를 애도함은 1844년 4월 7일 일리노이주 나부에서 열렸던 교회 대회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그 모임에는 약 이만명의 성도가 모였었습니다. 기사에 보면 이 말씀이 3월 9일에 사고로 사망한 예언자의 절친한 친구였던 킹 폴렛트 장로의 장례식에서 행해진 추모 설교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의 정서 정리는 윌라드 리처즈, 윌포드 우드럽, 토마스 블록크, 윌리암 크레이튼등 여러분이 해 주셨습니다.

이 기사는 교회 정사 제 6권 302페이지—317페이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교회 정사에 이런 설명이 실려 있습니다. “이 말씀은 녹음을하여 정리한 것은 아니나 설교를 기록하여 정리하는 일에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정확하고도 정성스럽게 준비된 것이다. 물론 예언자께서 전하신 말씀의 뜻과 정신을 완전 무결하게 정리하지 못했다는 점은 시인해야 할것 같다.....”

또 한가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이 설교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세상을 떠나기 두 달 전에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이다. 시기적으로 이 때는 적들이 날뛰던 때였으며 예언자는 닥아오는 사태에 대비하셨음이 분명하다.

우선 이 달에는 설교의 첫 부분을 심기로 하며 성도의 벗 5월호까지 전편을 다 소개하도록 하겠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 는 동안 특히 여러분께서는 축음에 관하여 특별히 마음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인 킹 폴렛트 장로가 사태로 미끌어져 내려온 바위에 희생된 일로 인해서 나는 특히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읍니다. 물론 폴렛트 형제의 친구와 친지로부터 이야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읍니다만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

여분, 그리고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또 이 세상 어디에 살고 있던지 친구를 놓지에 않은 사람이 많을 것이라 는 생각에서 되도록이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능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신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와 신앙으로 나를 도와주시기 바라며 이로써 내가 진리를 설파할 수 있고 이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내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확고 부동한 간증으로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건대 주님께서 나의 폐를 강건하게 해 주시고 바람을 잠재우시며 성도들의 기구가 하늘에 들려 사바웃의 주의 귀에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는 열심으로 드리는 의인의 기도가 큰 뜻을 이루는 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5:4, 5:16참조)

정한 주제를 직접 다루기 전에 여러분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먼저 기초가 되는 문제부터 언급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본론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이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예비지식을 넣어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학식이 풍부하거나 말 재주가 좋아서, 아니면 여러분 가지 귀에 달콤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귀를 흡족하게 해 드리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의 간결한 진리를 입증시켜 드리겠다는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무엇 보다도 먼저 나는—창조의 아침이 되는 태초로 이야기를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발점이 있습니다. 이 시발점을 살펴 봄으로써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늘의 보좌에 계셨고 지금도 그곳에 계신 위대한 엘로

힘이 공포하신 유행파 목적과 뜻을 쉽게 이해하게 되고 온전히 터득하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똑바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바르게 시작하면 계속해서 바를 수가 있습니다만 틀리게 시작을 하면 늘 틀릴 수 밖에 없고 이를 바로 잡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과거나 미래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자는 일 이외에 별로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짐승보다 조금 더 많이 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이의 영감의 안내가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먹고 마시고 자는 일 이외의 것을 배우지 못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그정도는 들풀 짐승도 먹고 마시고 자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감화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바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 다시 태초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높이 들리우고 인간이 대체로 열망하는 영광스러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깃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회중에게, 물론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모두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하시고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과 대화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이미 이런 의문으로 오랫 동안 방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거듭 묻겠습니다.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에 누구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분을 보았거나 그분의 말씀을 들었거나 함께 대화를 나눈 분은 안 계십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주위를 접종시킬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만일 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가 어떤 분이신 줄을 몰라서 물기만 한다면 마음으로 열심히 구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말씀이 참일진대 영생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또 다른 원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성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표는 침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보자는 것이며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또 내가 다행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아니 여러분의 마음에 그 원리를 전해주므로서 이를 영이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손으로 입을 가지고 다시는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히거나 손을 들어 헐뜯는 소리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면 나는 계시나 영감이 어떻게 연유되었으며 또 어떻게 선지자인체 하게 되었는가를 세상에 다시 설명해야 할 책임을 가지며 나는 어쩔수 없이 혼해빠진 세상의 거짓 교사로 인정을 받게 되어 뭇 사람의 친구가 되어 버리고 말 것이며 아무도 나의 생명을 노리거나 해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세상에 발표하므로서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지 못함을 사실



대로 시인할 수 있을 만큼 담대하기만 하다면 저들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받는 곤욕을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목숨을 노리 듯 저들 거짓 교사들의 목숨도 풍전 등화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를 거짓 교사라고 생각하는 이유하나로 나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모든 거짓 교사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로 주장하게 될 것이니 도대체 유혈은 어디서 끝이 나겠습니까? 또한 고난의 주인이 되지 않을 사람은 누구 이겠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누릴 특권

그렇더라도 누구의 종교이거나 트집 잡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종교의 자유를 조금도 침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종교가 자기의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남의 생명을 앗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는 보지 않으며 종교의 시시 비비를 따지지 말고 모든 정부와 법률은 이를 관용으로 용납하고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누구라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되거나 참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기본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 참 진리를 가졌다고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열쇠를 가졌노라고 하며, 권세를 가졌노라고 하는 교역자 백명 중에 아흔 아홉이 거짓 교역자임을 입증하여 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 세상이 온통 피 바다가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거짓 교역자가 틀렸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나는 이를 하나님께 간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만인에게 전해질 때 나에 대한 일체의 박해가 멈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내가 권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곧 승영의 인간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으로 다시 돌아 가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었을까요? 귀를 열고 들으시라. 온 세상의 꿈에 사는 사람들이여, 이제 나는 성경으로 여러분께 하나님 의 모습을 증명하며 인류를 위한 하나님 의 계획을 설파하며 왜 하나님께서 인간사를 간섭하시는 가를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때는 우리와 같은 분이시었습니다. 지금은 승영을 입으시고 저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참으로 위대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의 장막을 들추고 세상 만사의 열쇠를 가지시고 권세로서 세상과 세상의 모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걷고 이야기하며 대화를 나누되 우리가 서로 서로 대면하여 하듯 그렇게 했습니다.

사망의 근원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친구를 잊고 애통하는 자의 아픔을 달래 주려면 하나님의 존재와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되셨는가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히 하나님이시었다고 믿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나는 이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서 장막을 겪우어 여러분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의가 납득이 가지 않는 제의라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고 사람끼리 마주 서서 이야기 하듯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 도 한때는 오늘의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한 때 이지상에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성경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제 나는 내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합당한 곳에 있기를 바라며 천사장의 나팔을 갖기를 갈망하며 이로써 온 세상이나에 대한 박해를 영원히 그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던가요? (리그돈 장로 표시해 두시오!)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권세를 가지셨고 예수님도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하는 권세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답은 아주 명백합니다. —당신의 몸을 버렸다가 다시 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께서 하신 대로 나의 목숨을 버렸다가 다시 죄하겠노라. 여러분은 이를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성경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전에 이렇게 되어 있으며 나는 나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땅과 지옥의 온갖 권세를 합하여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영생이 있으니— 곧 지혜로우시고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에 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하며 여러분 이전에 살았던 모든 다른 신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이 되는 길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들은 조금씩 조금씩 과정을 거쳐 발전하였으며 작은 소임을 맡았다가 큰 것을 맡도록 발전했으나, 은혜에 은혜를 더하였고 승영에 승영을 더하여 마침내는 죽는 자의 부활을 얻고 영원한 빛과

운데 살며 영광중에 거하면서 영원한 권리의 보좌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말일에 하나님을 알기를 기원하며 세상에서는 혹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적질하여 의치더라도 여러분과 나는 이런 것에 혼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자는 영원한 빛 속에

이것이 위안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만일이 세상에서 남편이나 아내, 아버지나, 어머니, 자식이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통곡하는 사람이 비록 죽은 사람의 육신은 땅에 묻혔으되 다시 일어나 영원한 빛 속에 살게 되며 슬픔이나 고통을 받지 않는 곳에서 불사불멸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의 분배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만 저만한 위로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 간 사람들처럼 권세와 영광과 영원한 권리의 보좌를 상속받아 마침내는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그려는지, 나는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아버지가 행하신 대로 보았으며 그대로 행하노라. 나의 아버지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 왕국을 이루시었고 나도 그대로 행하여야 하노라. 내가 나의 왕국을 이룰 때, 이를 아버지께 드리어 아버지께서 왕국에 왕국을 더하시고 이로써 아버지가 영광중에 다시 승영되시기를 바라노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승영에 이르실 것이며 내가 아버지의 지위에 올라 스스로도 승영의 영광을 취하도록 하리라. 이와같이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빛 자취를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사업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모든 자녀가 마련하는 구원과 승영으로 영광을 받으시며 들어 올려지게 됩니다. 저극히 펑범하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가지 이야기로 설명된 복음의 첫 원리를 배웠습니다.

사다리를 오르자면 맨 밑에서 시작해야 하고 하나씩 하나씩 딛고 올라가야 맨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도 이와 같아서 우리는 첫 번째 원리부터 배우기 시작해야만 승영의 모든 원리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승영의 원리를 모두 배우고 난 후에도 오랜 세월이 지나야 장막의 저편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되는 것은 아니며 무덤 저편 쪽에서 배울 것도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를 인용한다면 나를 “대역죄인”으로 몰아 죽음에 부쳐야 한다고 큰 소리로 의치실 분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첫 번째 히브리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에 기록된 창조의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즉 Berosheit—란 말을 풀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Baith—란 그 안에, 로 인하여, 를 통하여 란 말도 되고 모든 것이란 의미도 됩니다. Rosh—란 말은 머리입니다. Sheit—란 문법적으로 끝맺음을 말입니다. 맨 처음에 영감을 받고 이를 기록하셨던 위대하신 분은 처음에 baith란 말을 쓰지 않았으셨습니다. 그런데 옛 유대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도 없으면서 그 위에 그 말을 더했습니다. 그 때 그 사람들은 으뜸이 되는 머리란 말을 처음에 쓰기 가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신의 머리 되시는 분이 신들을 불러 내시다.” 위의 말씀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Baurau란 말은 불러 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을 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하여도 내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잘 가르쳐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천

국 회의를 가지셨다는 뜻이겠습니다.

알아 듣기 쉬운 영어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너희 율법사와 박사와 제사장들이여 너희는 나를 펑박하였으나 이제 나는 성신께서 그대들이 그대들 만큼은 사물에 관하여 알고 계심을 그대들이 알기를 바라노라. 머리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신을 불러 천국 회의를 가지시고 이지구를 창조하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천국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머리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를 연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창조될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율법사와 박사라고 한 것은 경전에 있어서 유행사와 박사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제 나는 모두를 밝히 설명하였으므로 유행사들이 입을 열어 달콤한 말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웃고 말 것입니다. 박사들중에는 오직 성경의 말씀에만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할 사람도 많았습니다만 성경의 기록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라틴어, 히브리어, 독일어, 희랍어 본의 신약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독일어 본이 가장 정확한 책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적어도 지난십 사년 동안 주님께서 내게 계시해 주신 것과도 맞아 들어갔습니다. 이곳에 요한의 아버지인 제베디아들 야고부스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Jacob)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된 신약에는 이 이름이 야고보(James)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 야곱이(Jacob) 열쇠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 후세 사람들이 야고보(Jame)라는 이름으로 영원을 두고 의식을 진행해 보았자 사실상의 열쇠는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독일어 본 신약의 마태복음 4장 21절에는 야고보(Jamess)란 이름이 아닌 야곱(Jacob)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사들(물론 유행의 박사를 뜻하는 말입니다)은 “네가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치고 전파하지 않으면 대역죄로 물겠다.”고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계시를 내려 주지 않으신다면 과

연 우리는 지옥과 정죄를 면할 수 있게 될까요? 결국은 인간이 우리를 쇠사슬로 얹어 매는 것입니다. 라틴어로는 야고부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야곱이란 뜻이고 희랍어에는 야곱(Jacob)으로 되어 있으며 독일어에도 야곱이라고 되어 있으니 네 개의 기록을 바탕으로 틀린 한 가지 기록을 반증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오래된 이러한 책자를 갖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더욱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된 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는 이 책보다도 더 오랜 책인 성령의 은사가 잔적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사복음서가 다 있습니다. 식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모두 오셔서 읽을 수 있는 대로 이 책들을 다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rosh라는 말 즉 모든 신의 머리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입증되지 않았던들 나의 이러한 간증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나만이 옳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국회의

태초에 머리되시는 하나님께서 천국 회의를 개최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함께 모여 이 세상을 창조하여 인간을 보낼 계획과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똑바로 규명하므로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에 관하여 배우게 되는 것이며 파연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므로서 우리는 비로소 그분께 접근하는 방법을 알게 되며 어떠한 태도로 간구해야 응답을 얻게 되는 가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모습을 알게 될 때, 또 어떻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비를 열어 보여 주시며 이에 관하여 설명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준비를 갖추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할 준비를 끝내십니다.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 여러분께 한 마디 묻겠는데 어찌하여 식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들하면서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는 저들이 하나님의하시는 일에 관하여 전혀 아무 것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들은 성신의 은사를 받았을지도 없으면서 자기들의 주장은 거역하는 것이 곧 거룩한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전하면 즉시 여러분을 천치라고 할 겁니다. 나는 배운 사람이며 이 세상의 모두를 다 하여도 나를 능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성신과 더불어 함께 할 것입니다.

창조자라는 말의 의미

만일 여러분이 박사들에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셨다고 주장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들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고 하지 않았느냐? 고 반문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들은 창조라는 말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사실 창조라는 말은 Baurau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이는 무에서 무엇을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조직하고 체계를 세운다는 말로서 배를 짓는다든가 자료를 정리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자료를 갖고 계셨다는 사실을 유추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원소가 있으며 그 안에 모든 영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원소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존재했습니다. 참 원소의 내용은 결코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를 오직 정리하고 재 정리할 수는 있으되 없애 버릴 수는 결코 없습니다. 처음이나 끝나는 마지막이 없는 것입니다. ○

정책 및 규범

선교사와 교회 체육 프로그램. 복음 선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체육 프로그램을 갖지 않는다. 여기에는 와드 및 지부, 그리고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 갖는 여하한 운동 경기에나 다 해당이 된다. 이 규범은 모든 복음선교사의 직접적인 참여를 금지할뿐만 아니라 이 활동의 코치나 이와 비슷한 행위에도 적용이 된다.

모든 장로에게. 우리는 장로들이 의식을 집행할 때 혼히 의식의 주가 되는 부분만 이야기 하고 부가적인 축복의 말씀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에 특히 신경을 써 주기를 권고한다. 의식의 집행은 지극히 인상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물론 기도를 걸게 하라는 것은 아니며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간략하게 축복과 권고와 인도의 말씀을 더한다면 인상깊은 의식이 될 것으로 믿는다. 확인 의식을 예로 들어보면 이 확인 의식도 새로 침례를 받는 회원에게는 성신의 은사를 받는다는 뜻 깊은 의식이 되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이름을 주는 의식이라던가, 신전 성임, 성별, 병자의 기름부음과 축복 등 의 의식에서도 몇 마디의 간결한 축복의 말씀이 더해질 수 있다.

남자 회원을 성임할 때. 신전의 여하한 직책에 남자 회원을 성임 하도록 지지 를 물을 때 그 집회에 참석하도록 해야 하며 되도록이면 앞에 앉도록 하여 모두 가 볼 수 있게 한다.

와드 집회에서 성찬은 누가 관리하며 누가 먼저 성찬을 드는가. 신권회, 주일 학교, 성찬식과 같은 와드 집회에서는 감독이 감리 역원이 된다. 감독의 부재시에는 그의 제일 보좌가 감리자가 된다. 감독이나 그의 제일 보좌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이 보좌가 감리한다. 총 관리 역원이나 스테이크 부장단의 일원이 방문했을 때는 방문하는 높은 권위를 소유한 역원의 지시로 감독단이 사회한다. 스테이크 부장단을 대리하여 방문하는 고등 평의원은 감독의 감리권을 인수 받지 않는다.

성찬은 먼저 단위에 앉은 교회의 최고 권위자에게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는 질서있게 전달한다. 스테이크 부장단을 대리하여 와드를 방문한 고등 평의원으로서 단 위에 앉아 있을 때는 예의로 성찬을 먼저 들되 총 관리 역원이나 스테이크 부장단이 동석했을 때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고등 평의원이라 하더라도 자기 소속 와드에 공식 임무를 떠우지 않은 채 출석했다면 반드시 인사 소개를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소개를 하여 예의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안될 것은 없다.

총 관리 역원이나 스테이크 부장단이 방문했을 때에는 어느때를 막론하고 단 위에 앉도록 권한다.

모든 와드에 합창단을. 감독과 지부장이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교회 지침서 11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라’ 항을 소개한다.

와드 합창단은 성찬식 노래를 맡는 정규 집단이며 주기적으로 성찬식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 와드 합창단은 감독의 지시에 따르며 감독은 와드 합창단의 조직과 운영을 관리하고 합창할 주제 연습시간과 장소를 정해 준다.

모든 와드와 지부에 반드시 합창대가 있어야 하며 감독단이나 지부장단은 이들을 계속해서 격려해 주도록 한다.

교회 잡지 장기 구독의 책임은 집행 서기가 맡는다. 스테이크(혹은 선교부나 지방부) 집행 서기는 잡지 장기 구독에 관하여 조언을 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 그러나 잡지 책임자를 하지는 않는다. 그는 필요하면 스테이크 잡지 책임자를 돋는다. 또한 장기 구독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처하며 스테이크 부장에게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늘 보고 한다.

와드(혹은 지부) 집행 서기도 이와 비슷한 책임을 갖는다. 모든 와드와 지부는 유능한 잡지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한명 혹은 한명 이상의 보조자를 두어 프로그램을 원활히 이행하도록 한다.

교회 건물 내의 상업 광고. 일부 교회 건물에 상업 광고의 브랜드가 걸려있다는 보고를 받은 일이 있다. 대개는 교회의 사적이나 대회를 기회로 전세비행기나 빼스의 이용을 촉구하는 광고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업 광고물의 부착은 그릇된 것이다. 교회가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가 아닌 만큼 금후로는 여하한 성격의 상업 광고라도 교회 건물에 부착하는 것을 금하는 바이다.

● 토미와 벳시는 서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막 신이 났어요. “꼭 피크닉을 가는 것 같다.” 벳시가 말했어요.

“그래 좀 춥지만 않다면 꼭 피크닉 같은 거야.” 마차위에 점을 깔고 그 위에 아빠가 펼쳐주신 텸 침낭 속으로 기어 들어 가면서 토미가 대답했습니다. 마치 커다란 벼개 속으로 파묻혀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솜처럼 부드러운 텸 침낭 속에서 토미와 벳시는 아늑함과 따사로움을 느꼈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윙윙거리고 눈이 내리고 있었고 마차 포장 끝에는 어름이 얼어 붙기 시작했지만 마차 속에 깔아 논 텸 침낭 속은 그렇게 아늑했답니다.

길에는 어름이 덜혀 있었어요. 마차가 가파른 언덕 위에서 강기슭으로 내려 가기 시작했을 때 아빠는 토미와 벳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들아 마차에서 내려서 걸어 내려 가는게 훨씬 안전할것 같다.”

토미와 벳시는 아늑하고 따뜻한 텸 침낭에서 나오는 것이 싫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들은 마차에서 내려서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강 기슭 까지 걸어 내려 갔습니다. 그렇게 강가에서 아빠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박은 주먹 만큼이나 큰 것 같았고 마치 총알이 쏟아지는 것 같다

고 들은 생각했습니다. 물론 토미와 벳시는 풍풍 열어 볼을 것 같았어요. 토미가 말했습니다 “얘 우리 깅충 깅충 뛰면서 우박이란 놈을 좀 야단쳐 주자. 아마 우리가 깅충 깅충 뛰면 추운걸 이겨낼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아빠와 엄마가 내려 오시면서 모두 보셨습니다.

토미와 벳시는 아빠가 겁먹은 소리를 달래어 물고 내려 오시는 것과 둑그런 양재기로 소머리에 우박이 맞지 않도록 가려 주시면서 아빠를 도와 드리고 있는 엄마를 보았고 자기들이 울지 않고 웃고 있는 것을 흡족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마차 위로 올라가 아늑하고 따뜻한 텸 침낭 속으로 들어 갔어요.

잠시 후에 토미는 포장 한 끝을 젖혀 올리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온통 포장 마차가 온 마을로 부터 강쪽으로 몰려 오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마차가 모두 강을 건느냐요?” 그는 큰 소리로 의아하여 물었읍니다. “나쁜 배는 모두 얼어 붙었잖아요?”

마침 포장 쪽으로 몸을 젖히셨던 아버지가 토미에게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신 저 어름 다리를 밟고 강을 건느게 되었단다.”

토미는 강을 내려다 보았어요. 건너편이 아득하게 보일



마치 커다란 벼개속으로 파묻혀
들어가는 듯 한 느낌이었어요.
솜처럼 부드러운 텸 침낭 속에서
토미와 벳시는 아늑함과 따사로
움을 느꼈어요.

만큼 넓은 강이있어요! 이렇게 넓은 강도 무거운 마차가 디고 건널 수 있는 만큼 단단하게 엘 수가 있을 것인지? 그는 아버지가 마차를 어름 위로 불고 가셨을 때 극도로 긴장하여 숨도 크게 쉴 수가 없었지만 깨질 것만 같아 여겨지면 어름은 그대로 있는 것이었어요! 토미와 벳시는 마차가 모두 줄을 지어 천천히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어름은 그대로 있었어요!

정말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자기들을 사랑하셔서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느낌이 강하게 전해 오는 것을 느꼈어요. 마침 이런 속에서 어떤 부인이 노래를 시작했고 곧 다른 사람들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포장 마차의 대열이 슈가 크리크에 도착할 때까지 노래를 계속했습니다.

슈가 크리크는 성도들이 따뜻해 질 때까지 야영을 하기로 계획해 둔 곳이었어요. 이들보다 먼저 이곳에 도착한 사람들이 노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곧 야영의 불을 준비하여 새로 도착하는 이들을 영접하고 저들이 도착하는 즉시 봄을 녹일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토미와 벳시는 이들이 준비해준 모탁 불에 감사했습니다. 토미와 벳시는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불옆으로 가서 온 봄이 따

끈 따끈해 질때 까지 이쪽 저쪽으로 불을 쬐었어요. 토미가 먼저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서 소에게 먹이를 먹이고 소젖을 짜는 일을 도와 드렸어요.

“벳시야” 엄마가 부르셨습니다. “빵상자에서 빵 한 줄만 꺼내다오. 오늘 저녁은 빵과 우유로 하자.”

빵 덩어리는 마치 돌덩이처럼 열어 있었읍니다. 엄마는 칼로 빵을 짜르려고 하시다가 망치로 두들겼지만 결국 빵은 짜르지를 못했고 이광경을 보고 있던 벳시는 허리를 잡고 웃었읍니다. 우유를 들고 오시던 아버지는 “내가 텁을 가져오마.”라고 하셨고 아버지가 큰 텁으로 작은 빵을 자르시는 것을 보고 모두들 큰 소리로 웃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빵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셨어요. 토미와 벳시는 이 빵 조각을 따뜻한 우유에 담갔읍니다. 밤이 되어 따뜻한 텸침낭 속으로 들어간 토미와 벳시는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돌아켜 생각해 보았어요. 벳시는 고양이 새끼와 둥그런 등판이 달린 의자와 나부에 두고 온 시계를 생각했어요. “잘 자라 벳시, 잘 자라 벳시”라고 시계가 말하는 소리가 벳시의 귀에 들려 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벳시는 잠이 들었읍니다.

그러나 토미는 좀 사정이 달랐읍니다. 그는 자기들을 나



토미는 강을 내려다 보았어요. 건너편이 아득하게 보일만큼 넓은 강이었어요! 이렇게 넓은 강도 무거운 마차가 디고 건널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엘 수가 있을 것인지?

부에서 몰아 낸 잔악한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저들이 뒤 쫓아 추격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생각을 할 수록 짐은 점점 멀리 달아 났어요. 완전히 짐을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야영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모두 들을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이 마차에서 저 마차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포장 마차의 얼어 붙은 휘장을 걷어 올리시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토미야, 벳시야 일어나！”

토미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 났나요?” 토미가 물었답니다.

“존슨 자매님이 딸 얘기를 넣으셨다.”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네 텔 침낭으로 존슨 자매님과 얘기가 이 추위를 막고 좀 쉬실 것 같구나.”

이때 벳시도 짐을 깼어요. 둘은 힘을 합해서 텔 침낭을 풀어 내려 아버지께 드렸어요. 아버지는 벳시를 다시 어떤 자루에 넣어 주셨고 벳시는 어느새 다시 짐에 들고 말았어요.

토미는 온통 흥분하여 짐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는 하는 수 없이 불꽃을 내며 타고 있는 모닥불 옆에 가서 섰답니다. 그렇게 서 있는데 엄마가 존슨 자매님의 마차에서 아

기를 안고 나오셨어요. “금방 텔 침낭이 준비될 거예요. 그러면 얘기 엄마 바로 옆에 얘기를 늦히겠어요. 아득하고 따뜻할걸요.” 엄마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불옆에 서 있는 것이 더 따뜻하답니다.” 토미는 포장 마차에 붙은 어름을 쳐다 보면서 어머니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토미와 벳시는 그 새로 태어난 얘기가 어여나고 엄마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지난 밤에 말이다. 얘기가 하나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모두 아홉이나 태어 났단다.”

“아홉 얘기요!” 토미와 벳시는 밀어 치지를 않았어요. 엄마는 하나씩 번갈아 바라 보시면서 “그 얘기 중에 적어도 한 얘기는 따뜻한 텔 침낭을 양보해준 아이들 덕분에 평안하게 지내고 있단다.”

토미와 벳시는 서로 쳐다 보며 웃었어요. 마음으로 뿌듯하게 따사로운 행복의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이 마차에서 저 마차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포장 마차의 얼어붙은 휘장을 걷어 올리시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토미야, 벳시야 일어나！”

토미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 났나요?” 토미가 물었답니다.





마벨 존스 개봇이 전하는 물론경 이야기／개리 캐프역

● 니파이는 그의 형 레이맨과 레뮤엘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들은 아버지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다고 하여 불평을 하는 것이었다. 그는 형들에게 큰 성 예루살렘에 멸망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지만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니파이는 레이맨이나 레뮤엘보다 어렸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똑바로 알고 싶어서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였다. 주님께서는 니파이를 방문하시어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셨다.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가 들려주신 말씀을 모두 이해하게 되었다. 니파이는 그의 동생에게 그가 보고 들은 것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고 샘은 니파이의 이야기를 모두 믿었다. 레이맨과 레뮤엘은 주께 구하지 아니하였고 리하이나 니파이의 이야기도 믿지 않았다.

그러던 가운데 리하이는 아들들에게 주께서 예루살렘의 레이맨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는 것과 그의 집에 놋쇠 판에 기록한 기록이 있다고 하신 사실을 이야기해 주셨다. 주는 레이맨의 집으로 돌아가 기록을 광야로 가져 오도록 지시 하셨던 것이다.

레이맨과 레뮤엘이 이 소리를 듣고 뿌르통하여 불평을 하면서 아버지가 너무 심한 것을 시킨다고 투덜댔다. 리하이는 그것이 자신의 명령이 아니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그런 후에 니파이에게로 향하여 “네가 불평을 하지 않았으니 네게 복이 있도다. 주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고 했다.

이에 니파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일을 수행하도록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일을 명령하지 않으실 것을 내가 압니다.”(니일 3:6, 7 참조)

니파이와 그의 형제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레이맨의 집으로 갔다.

레이맨이 먼저 레이맨의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기로 되었으나 레이맨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전하자 레이맨은 화를 냈다. 그러자 레이맨과 레뮤엘은 리하이의 천막으로 돌아가려 하였고 니파이는 예루살렘의 옛집으로 돌아가 남겨두고 온 금과 은과 값진 보화를 가져다가 레이맨의 기록과 바꾸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레

이밴은 이들의 보화를 뺏고 나서 기록도 내주지를 않았다. 그리고는 종을 시켜서 큰 바위굴에 숨어 있는 이들을 죽이라고 하였다.

레이맨과 레뮤엘은 극도로 화가 나서 니파이와 샘을 막대기로 때리기 시작했다. 이 때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 주님께서 레이맨의 목숨을 너희들 손에 부치시리라.”

그러나 레이맨과 레뮤엘은 이를 믿지 않고 “어찌 그러하랴. 레이맨은 힘이 세자요 수하에 종이 오십이나 되지 않느냐”고 하였다. 이에 니파이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합한 것보다 더 강건하시고 레이맨의 종보다 더 강하시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라고 하였다.

밤이 되어 이들 형제들은 성벽에 몸을 숨기고 니파이가 레이맨의 집으로 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정원으로 기어가다가 술에 취하여 땅에 엎드려진 레이맨을 발견하였다.

이때에 영의 음성이 니파이에게 레이맨의 칼을 뽑아 레이맨을 죽이라고 말하였다. “아니 나는 어느 때라도 사람의 피를 흘릴 수는 없읍니다.”라고 니파이는 말하였다. 그러나 영은 다시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주님은 의를 이루시고자 불의한 자를 처단하시는 것이라. 온 나라가 뒤 혼들리고 불신앙에 빠지는 것 보다 하나가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니일 4:10, 13참조)

니파이는 칼을 뽑아 레이맨의 머리를 잘랐다. 그리고 나서 레이맨의 값진 옷을 벗겨 입고 갑옷을 두르고 칼을 찬 다음 집으로 갔다.

그는 종에게 명하여 거룩한 기록을 꺼내다가 텁 밖에서 숨어 기다리는 형제들에게 가져 가라고 하였다. 조랩이라는 이 종은 니파이를 레이맨인 줄로만 알고 그 명령에 죽어 행하였다. 니파이는 그에게 함께 약속의 땅으로 떠난다면 자유를 주겠노라고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니파이와 그의 형제들은 놋쇠판과 레이맨의 종을 얻어 무사히 광야에 계신 아버지의 천막 곧 리하이의 천막으로 돌아왔다. ○



마가의 친구

매리 엠 칼든 작／제리 할스톤 역

●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이며 마가가 정말 예수님이 생존해 계시던 때에 살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 마가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깨어있게 해 주세요 네?”

마가의 아버지는 아들의 간절한 음성과 소망에 가득찬 눈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해할 수 있었읍니다.

때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기념하며 예수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특별한 잔치를 열고 계시던 때였읍니다. 지금 윗층 큰 방에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들고 계시는 중이었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그의 친구들이 떠나시려면 아직도 멀었는걸” 마가의 아버지는 부드럽게 대답해 주셨읍니다.

“괜찮아요.” 마가가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예수님 열굴을 한번, 꽃 한번만 더 보고 싶어요, 아버지”

마가의 아버지는 승락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하셨읍니다.

마가는 계단 끝에 좀 더 편안하게 자리잡고 앉으면서 곧 예수님이 내려 오실 거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읍니다. 주변은 아주 조용했고 가끔 이층에서

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소리가 낮게 들려 왔읍니다.

마가는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보여 주셨던 햇빛같이 밝던 예수님의 미소를 생각했읍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려고 몰려온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 틈에 끼어 있었읍니다. 예수님은 얌전한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셨읍니다. 마가와 다른 아이들은 감람나무 일파꽃을 꺾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장식했읍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고맙다는 뜻으로 미소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밤의 적막이 짚어지는데 마가는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에 관하여 들은 이야기를 모두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는 그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부자집 소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과 문동이 시몬이 병고침을 받아 깨끗하게 된 일. 그리고 여리고의 장님 거지가 다시 빛을 보게 된 일 등등.

갑자기 윗방 문이 열렸읍니다. 마가는 대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몸을 일으켰읍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내려오는 바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었고 목이 천듯하고 늘 어두운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읍니다. 마가는 그가 분주하게 충계를 내려오면서 “빨리 처리해야지”라고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곧 그는 어두운 밖으로 사라져 갔읍니다.

윗층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읍니다. 마가는 다시 조용하게 귀를 기울이며 기다렸읍니다. 온 집안은 예수님을 함께한다는 행복함으로 가득하고 조용했읍니다. 마가는 잠시 충계 머리에 머리를 기대고 쉬겠다고 하다가 금방 잡이 들었읍니다. 마가의 아버지는 마가가 잡이 든것을 보셨지만 예수님을 간절하게 보고 싶어하는 줄 아셨기 때문에 조용하게 그냥 옆으로 지나 가셨읍니다.

잠시 후에 윗층의 문이 열렸고 위에서 내려비치는 불빛에 마가는 잡을 깼읍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내려오는 동안 마가는 우뚝 일어 났읍니다. 제자를 데리고 충계를 내려오시던 예수님은 마가의 열굴을 오랫동안 들여다 보셨읍니다. 마가는 미소를 지었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뻗혀 나오는 커다란 화평과 행복의 기운이 마가의 온 몸을 감싸는 것 같았읍니다.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얼마후에 마가는 조용히 잠자리에 들면서 잠자는 다른 식구들을 깨우지 않도록 조용하게 움직였읍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온 집안이 시끄러워 졌읍니다. 봉둥이와 희불을 든 사람들, 창과 칼을 든 병정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온



열 한 제자를 이끌고 내려
오시다가 마가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멈춰섰고 다시 마가의
얼굴을 찬찬히 내려다 보고 계시다.





집안을 살살이 찾고 있었습니다.

“윗층이요”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마가는 그 소리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마가의 아버지와 종들이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마가가 소리쳤습니다.

“꼭 찾아 내고야 말테다.” 무리중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온 집안을 돌아 다니면서 온통 뒤졌고 사람들이 지나간 곳은 흘러지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혼란해 졌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없다.” 그는 다시 가룟 유다를 바라 보면서 “자 어디 있지 이 엉큼한 녀석아”라고 했습니다.

마가는 유다가 머뭇 거리다가 “겟세마네에요. 그곳에 기도하러 갔습니다.”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가는 잠자리에 들려고 했던 것도, 잠옷만 입고 있다는 것도 다 잊어 버리고 감람산 겟세마네 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어둡고 좁은 골목길을 막 뛰어 갔습니다. 맨발로 돌위를 달리기 때문에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벗어난 그는 세드론 시내의 다리를 건너서 남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는 작은 감람 나무 숲으로 난 길로 접어 들었습니다.

마가가 숲으로 뛰어드는 소리에 졸고 있던 제자들이 깼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찾던 이야기와 그 군인과 폭도들이 오기 전에 이를 예수님께 알릴려고 뛰어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예수님을 도와 드리세요.” 마가가 소리쳤습니다. “군인들이 오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집을 이미 떠났고 그 사람들을 안내하는 사람은 이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발 예수님을 도와 드리세요.”

“물론 말씀드리겠다 애야.” 예수님의 친구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면 너는 열린 집으로 돌아가서 안전하게 숨어 있도록 해라 자, 어서 이곳을 떠나라, 가는 길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마가는 집으로 돌아 왔지만 밤이 새도록 한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목멘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근심해서 마가는 무슨 일이나고 했더니 아버지는 “마가야 염려할 것 없다. 다 잘 될테니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 가셨는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을까? 마가는 다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를 들려 주실 때는 사는 것이 꽤 노래와 같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어찌 셈인지 병정들은 예수님의 가까이 계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또 무덤에 뉘이 셨을까?” 마가는 혼자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슬프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날도 지나 안식일도 다 갔습니다. 그리하여 안식일 후 첫 날이 되었습니다. 마가는 눈을 뜨자마자 그동안에 일어 났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찬란한 햇빛은 모든 근심의 먼지를 털어 갔습니다. 마가는 자리에서 뛰쳐 나와 창 옆으로 갔습니다. 온통 세상은 새로운 활력으로 솔령거리고 있었습니다. 햇빛도 더 밝고 신선했습니다. 마가가 지니고 있었던 모든 근심과 불안은 말끔히 씻겼습니다.

무엇인가 놀랍고 훌륭한 일이 일어난것이라고 마가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제의 슬픔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사라졌고 슬픔이 있었던 자리에는 더 큰 행복이 파도처럼 밀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 오셨다고 마가는 생각했습니다. 그의 평화와 사랑이 다시 왔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로 뛰어 갔습니다. 마침 아버지는 정원에서 어떤 사람 두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마가는 그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았습니다. 그 옆에는 여자도 세분이나 서 있었습니다. 마가는 조용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기쁨에 찬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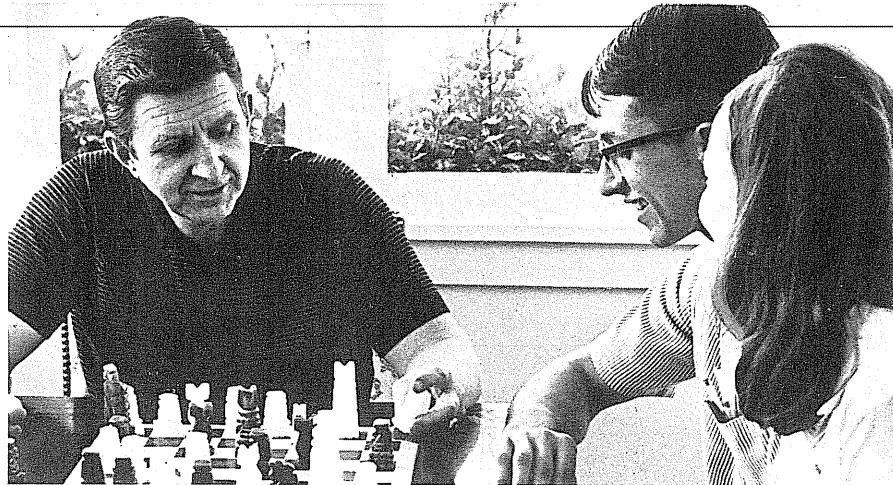
“그는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보았어요”

“제자들에게 이르라고 하셨어요”

“전에 말씀하신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살아 계시구나” 마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셔. 난 잠에서 깨어 났을 때 바로 알았어. 이제 누구도 내 곁에서 그 분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

마태 28:6 참조.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것

● 어제 저녁에 누이를 보러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이 기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났고 마감 날짜가 박두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병원에서 느낀 그 뿌듯하던 영적인 느낌이 나를 움직였고 그 체험의 일부를 여기에 소개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나는 병세가 심한 아내와 어머니인 어느 부인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 가정의 밤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외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귀환한 훌륭한 아들이 선교사로 일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하면서 병실 벽에 환등을 비쳐가며 설명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할 기회를 얻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 가족도 내가 병원을 방문하고 있는 동안 연기하고 있던 가정의 밤을 갖기 위해서 함께 모였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불렀고 또 경전도 읽었다. 그리고 그날은 금식을 한채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다.

원래는 여러분에게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되는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품과 자격에 관하여 언급하려 하였으나 병실에서의 체험과 우리집에서의 가정의 밤에서 느낀 바가 커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주제로 하여 이야기하면서 또 둘의 상호 관계를 논해 보고자 한다. 과연 이 글을 읽기 시작한 사람이 이 두 가지

의 관계를 벌써 알아 차렸는지 자못 궁금하다. 그러면 병원에서의 체험과 내 가정의 밤과 우리들의 사랑이나 (이미 결혼한 사이라면) 결혼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내가 잠간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결혼에 까지 연결될 사랑을 생각하기 시작했거나 체험하기 시작했다면 동시에 아주 구체적으로 장래의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도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훌륭한 결혼은 훌륭한 가정이고, 훌륭한 가족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러한 결혼 이야 말로 지극히 중요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혼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다. 행복한 결혼을 진정으로 원하며 그러한 결혼에 이르는 방법을 배우기를 갈망하며 그것에 필요한 노력의 댓가를 지불할 수 있는 성숙한 두 사람의 수고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결혼이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성인의 사업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도 성인의 영역에도 달하지 못하고 있다. 저들은 아니 참된 결혼의 행복을 갈구하는 모든 사람은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행복한 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를 배워야 하며 이를 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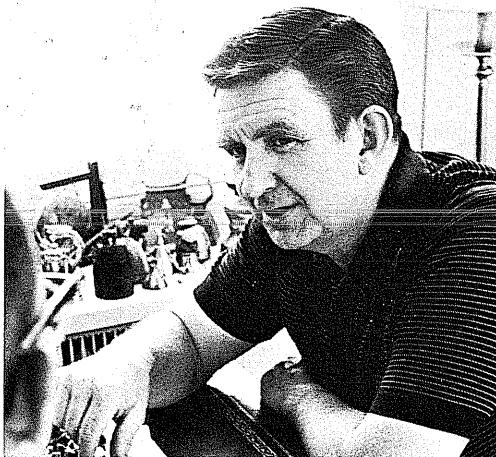
확실히 두 사람 서로에게 흥미를 갖게하는 그 “무엇”이 있어서 때로는 전혀 동떨어진 두 사람의 세계

매리온 디이 행크스

를 하나로 묶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바로 이웃의 두 사람을 결합하게 하기도 한다. 바로 이 “무엇”이라는 것이 사랑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며 아름답고 신성하고 아늑한 요소가 되기도 하며 동시에 사랑의 모두 이기도 한 것이다. 이는 존경, 사려깊음, 책임, 아량, 그리고 관용등의 정원에서 가꾸어져야 하는 아름답고 부드러운 꽃이다. 이 유대는 강한 우정으로 지속되어야 하며 —이 우정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자세를 배제하고 결혼으로 연합된 두 사람의 공동의 흥미와 관심사를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결혼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우정이어야 하며 이것이 없을 때 두 사람 중 어느 하나도 행복해 질 수가 없는 것이다.

다니엘 웨스터는 자유와 결속이라는 정치적인 발언을 했으며 이를 그대로 결혼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훌륭한 두 젊은이가 서로 사랑을 느껴서 결혼을 계획하게 되었고 가정을 이루어 가족을 갖고 우정과 부부애로 단합되기를 꿈꾼다면 자유와 결속의 원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브라함 링컨은 나라를 사랑하는데도 이 두 가지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상호간의 결속이 강화되어 보존되지 않을 때 참된 자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결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입센의 인형의 집에 나타난 것을 보면 남



편과 아내가 결혼의 바탕이 되는 자유를 어떻게 누리는가를 알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당신은 아내요, 어머니라는 걸 알아야 하오”라고 남편이 주장하는가 하면 아내는 아내대로, “나는 내가 무엇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간입니다.”라고 부르짖고 있다.

결혼이란 상대편이 그 속에서 숨쉬면서 성장할 수 있는 즐겁고 너그러운 삶의 신뢰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노력과 수고를 서로 결마지겠다는 결의를 가진 두터운 우정이다.

결혼이란 겨를 날려 버리고 알곡을 거두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결혼하므로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을 존경하오, 나는 당신을 보호할 것이며 당신에게 귀를 기울이겠오. 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결혼은 언제나 향상을 기약하는 사랑의 행위이어야 하며 “사랑을 느끼는” 것에서 시작하여 모든 일에서 사랑하고 창조하며 지지하는 행위로 연결되어야 한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에 쫓아 들이 하나가 되는 의식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간구하는 가운데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서로 서로가 하나님께 약속한 성스러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결의이다.

그 병원에서의 체험과 그 슬픔, 그 아픔, 그 온화하고 애틋함이 바로 결혼이 갖는 의미의 모두이기도 한 것이다. 사랑과 가정과 가족이 담긴—큰 청자진을 그려 보기로 하자. 석장을 각각 마련해도 좋다. 사랑의 그림

을 만들어 보기로 하되 인내로 들어주고 값없이 주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사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한다. “온갖 격정을 누르고 오직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하라”는 말의 의미를 배우도록 해야 하겠다. 참 사랑은 사람의 모두와 삶의 모두와 또 상대의 장래를 돌보고 염려한다. 위대한 옛 현자들도 이야기 했지만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은 “우리들의 가정 구들 밑에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를 믿자. “가정과 가족과 사랑안에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빛나게 하는 영적인 자원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를 믿자. “참으로 그것이 우리들의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물리치고 영속하는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힘인 것이다.”

그러니까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결혼과 가정과 가족을 갖도록 준비하고 또 꼭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나 한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그러한 대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서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 결혼에서의 행복이 보장되려면 결혼하는 두 사람의 인품과 관용이 서로에게 용납되고 또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둘의 결속 속 곧 결혼에 대한 두 사람의 철저한 정신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자기 만족이나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결정 하려 해서는 안된다. 결혼에 임하는 두 사람은 마치 협약기의 서로 다른 줄과 같아서 굵기와 줄의 긴장도가 다르고 소리도 다르지만 같이

울려서 조화를 이룬다고 누군가가 말한 일이 있다. 행복한 결혼과 훌륭한 가정으로 연결되는 사랑에는 부부로서의 가까운 삶의 유대를 맺는데 필요한 모든 약속을 원만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구현되며 동시에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개개인의 개성이 보호되며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결혼을 한지 오래거나 방금 결혼했거나, 혹은 약혼 단계에 있거나—결혼을 존중하고 조심과 사려 깊음과 지혜로 결혼을 정하도록 하며 기도와 연구로서 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혼이야 말로 인간이 한 평생을 살면서 자기가 자의로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결혼을 전제하며 결혼은 곧 가정과 가족이란 뜻이 된다. 우리들에게는 결혼은 영원한 성약이며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로 묶는 결속의 유대이기도 한 것이다. 신전결혼은 신전 의식이라던가 궐위로 집행되는 성스러운 의식이기 전에 우리를 영원히 인봉하는 훌륭한 약속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며 의식에 임할 때 얼만큼 합당하며 과연 결혼의 제반 임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 하는 것에 좌우된다.

물론 선택도 잘 해야 하고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도 해야 한다.

결혼은 서로가 커다란 임무와 특권을 허가받는 우정관계이기도 한다. ○

질의응답



“신전 결혼이 영원의 성격을 띄우기 위해서 성신의 약속으로 인봉되어야 하는가? 또 누가 이를 인봉하는가?”

모든 신전 결혼은 결혼에 임하는 사람들이 합당하기만 하다면 성신의 약속으로 이 세상과 영원을 위하여 인봉된다. 인봉이란 결혼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신전으로 집행되는 모든 의식에 다 적용된다.

신전에서 집행되는 결혼은 예언자나 교회대관장 혹은

이와 대등한 권세의 열쇠를 가진 자로부터 인봉의 권세를 물려 받은 사람에 의하여서만 집행되는 것이다. 총판리 역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봉할 수 있는 사람이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신전은 대체로 제한되어 있다.

여기 소개되는 대답은 이해를 돋는 보충자료는 될 수 있으나 교회 교리의 공식 발표는 아니다.

성신의 약속이란 무엇인가? 이는 권능을 소유한 자에 의하여 위에 언급한 방법으로 인봉이 집행되었을 때 그 인봉을 받는 사람의 성실의 도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승인의 표시”로 주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교성 88:3, 132:19 참조)

“또한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모사이야서 2:22)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 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10)

“이는 나의 축복을 받을 자는 그 축복을 주기 위하여 정하여진 율법과 조건을 창세 이전부터 제정된 그대로 반드시 지켜야만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132:5)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몇 마디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신의 약속으로 인봉된다.’ 혹은 반드시 신전 결혼 의식에만 연결할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온갖 축복과 의식에 다 적용시켜야 합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도 영으로 인봉됩니다. 확인 의식이나 성임 기타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식 등등이 다 이와 같습니다.

“그 의미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복음의 축복과 성약을 통하여 받게 되는 모든 약속이나 책임, 맹약, 성약, 유대 등은 성신의 약속으로 인봉됩니다. 구하는 자가 끝까지 성실히 추구할 때 축복이 주어진다는 약속이며 성실하지 않으면 성령은 겉우어 지고 얻을 수 있는 축복과 약속을 겉우어 간다는 뜻입니다.”(구원의 교리 [복크래프트사 1957년 발행] 제2권 94페이지)

주님은 언제나 그의 약속을 지키신다. 모든 인봉은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성약 중의 우리의 부분을 이해했을 때 축복을 안겨 줄 것이다. 우리가 본분을 다 하지 못한다면 물론 축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오 베슬리 스톤

쏠트 레이크 신전장

“여자가 결혼을 안하는 문제로 염려해야 하는가?”



염려하는 것 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와 결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되지도 못한다.

결혼과 모권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룩한 것이며 가족의 유대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말일 성도의 여자가 이 세상에서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목표로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말일 성도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 아울러 결혼에 대한 절차와 결혼 적령기에 관해서 지역적으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나라나 가정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온 세계가 공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결혼 적령이라든지 하는 것을 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십대에 결혼을 하면서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만큼 지혜롭게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늦게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아주 성공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마 영원토록 그런 보상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 결혼 의식 자체가 행복이라던가 개인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법정에 보관된 이혼 문서가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

여자는 모두 합당한 남자와의 결혼에 까지 이르도록 늘 전설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같이

하므로서 복음의 가르침과 이상에 쫓아 조화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가능하다면 특수한 기술을 습득해도 좋겠고 특히 가사를 공부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보다 이상에 맞는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한다면 더 없이 좋으리라고 본다.

그렇게 하면서 참으로 행복한 여성은 인생을 값진 체험의 기간으로 생각하고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기쁨을 아는 여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이다.

독신녀는 자기의 연령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기 보다는 자기 생활의 자질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권고하고 계시다 :

“……훌륭한 자매 여러분 특히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축복이 겉우어져 버릴 것이라는 염려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 구애에 대답할 책임이나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속으로 이 복음이 참되다는 간증을 가지며 합당한 때에 신전에서 의식과 인봉의 축복을 받기로 준비하고 있다면 비록 지금 그 시기가 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소망하고 바란다면 주님께서 이 일이 이루어 지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이며 여러분은 온갖 축복을 다 받을 것이니 이는 여하한 축복도 여러분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조셉 월링스미스, 선지자 엘리야와 그의 사명[메저벳 출판사 1957] 51페이지)

“아직 구혼을 받지 않았으나 차차 결혼 연령에 이르고 있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합당하게 자기를 지키며 주님의 집에 들어 갈 준비를 하고 거룩한 의식을 믿는 신앙을 가진다면 지금 당장에 결혼의 특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합당한 때에 이 축복으로 보상하실 것이니 여러분이 받지 못할 축복은 없읍니다. 합당치 않아서 마음에 내키지 않고 온전한 축복을 다 받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의 구혼에 응할 필요는 없읍니다.”(해롤드 비이 리 청년과 교회 [메저벳 출판사 1955년] 132 페이지).

엘버타 에이치 크리스찬슨

상호부조회 본부 임원회임원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승영이다. 이것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결말이며 본질이다.

구원이란 영생이다. 해의 영광의 세계의 가장 높은 부

분의 유산이며 가족의 유대가 영속될 수 있는 유일한 처소이다. 물론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광스러운 승영의 영광에 들어 가족의 유대를 계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영광을 누리는 곳이며 영원 무궁하도록 번성할 수 있는 곳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사람



을 위하여 예비된 곳 보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곳이다. 그곳이 바로 신의 세계다.

전체 경전에서 꼭 세균데에 구원이란 것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면전의 온전한 영광과 다르다는 계시가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어휘의 부족으로 우리는 구원의 계획 전체를 염두에 두고 구원이란 말을 전체적인 것으로 사용하고는 있다. 경전에는 전체적으로 구원을 영생 혹은 승영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받는 약속으로 쓰고 있다.

구원이란 말이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쓰이지만 우리는 다음의 경우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알고 있다.

1. 전체적인 혹은 일반적인 구원은 불사불멸을 뜻한다. 이것은 부활한 후에 어느 영광이거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죽음에서 풀려났음을 의미하며 지옥이나 악마에게서 풀려나 끝없는 고난에서 풀렸음을 의미한다. 악마의 자식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곳에 갈 수 있다.

2. 조건적이거나 개인적인 구원.

이 경우는 대개 해의 영광의 왕국에 구원되는 것을 뜻한다. 이곳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한 사람을 위하여 마련된 곳이다. 온전한 뜻에서는 승영을 얻은 사람만이 최고의 영광인 해의 영광에 들어 간다는 제한이 있다.

3. 은혜에 의한 구원

이것은 전체적인 혹은 일반적인 구원과 마찬가지로서 명칭에 있어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특별히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이 명시되지 않았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한다.

4.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의 구원.

이는 물론 여러 왕국의 영광과 구원을 뜻한다.

거의 예외 없이 경전에서 언급되는 구원은 온전하고 총괄적인 구원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뜻에서의 구원이란 바로 영생이며 승영이 된다. 나아가서 이 의미는 완전 무결한 뜻에서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다.

영생이란 하나님께서 사시는 그런 삶이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 중에 가장 고귀한 은사니라..."(교성14:7참조) "...구원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는 없느니라..."(교성6:13참조) 이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없고 하나님의 생활보다 더 훌륭한 생활이 없기 때문이다.

승영은 해의 영광의 하늘에서의 가장 고귀한 상속이며 이곳에서만 가족의 유대가 존속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영광이 얻어질 수 있고 영원한 종족의 번성이 가능한 것이다. (교성132:19-24 참조)

요셉 스미스는 구원을 이렇게 정의하셨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가지신 영광과 권리와 권능과 근엄과 다스림으로 구성되며 구세주나 구세주와 같이 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구원의 상태를 설명하시면서 예언자는 이렇게 가르쳤다. 구원은 "그리스도와 같아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같이 된 자며 구원받은 많은 생명중에 가장 모범적인 인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같이 된 자는 구원받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와 같이 되지 않으면 멸망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관건이 된다.'(신앙의 강론 63-67페이지)

이러한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은 부활하신 후에 구원에 관하여 강론하신 바 물론경에 기록된 내용파도 일치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와 같이 되겠고 나는 아버지 같이 되리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니라."(니 삽 28:10)

이와같이 온전하고 정확하고 침센 의미에서는 구원이라는 말과 영생, 그리고 승영이 하나님의 의미를 갖는 말이며 이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께 계신곳에 간다는 것을 뜻한다.

부르스 아바르 벡콩키 회장
칠십인 제일 회장단

주의 전에서

● 다음의 글은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관리하여 제작한 환등 대사에서 발췌한 것이다. 협세와 영원이라는 영화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영화는 교회 번역 출판부를 통하여 모든 교회에 전달되었다. 이 영화에서 젊은 말일성도 소녀 젠은 신전 결혼이 아닌 세상의 결혼식을 따르자는 남자의 제의에 결혼을 거부한다.

이 새로운 환등에서는 젠은 다른 젊은이와 신전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 애인의 감독과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결혼의 의식을 따름으로서 얻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제작, 부리감 영 대학교 영화과 촬영)

1. 축하하네 부르스군! 자네와 젠을 위해 행복을 비네.



2. 감독님. 우리도 아주 행복합니다. 저는 감독님의 접견을 받았고 제도 제의의 감독님의 접견을 받았습니다. 신전에 가는 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3. 결혼을 하겠다는 결심은 젊은이가 일생 동안에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결정의 하나라고 하는 사실에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네.

결혼을 준비하느라고 바쁠 줄 아네.

그러나 실제로 의식을 위한 눈에 띠는 준비 보다는 영원한 결혼을 위한 영적인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한 결세.



4. 자네들은 모두 특별한 사람일세.
왜 그런고 하니 자네들은 이미 전
세에서 훌륭한 일을 했고 복음을
가질 수 있는 이 경륜의 시대에 태
어 날 권리를 얻었으니 말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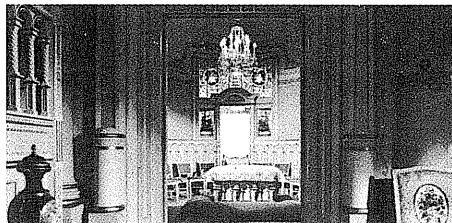
5. 자네는 복음의 계획에서 가정이 가
장 근본적인 단위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네. 교회의 제반 움직
임은 가정을 중심으로 하며 가정을
위하여 이 세상과 영원을 두고 어떤
유익과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네. 신전에서
결혼하고 복음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주가 원하시는 대로의 가족 형성의
길일세.



6. 대부분의 교회의 의식은 권능을 가
진 사람에 의하여 어느 곳에서나 집
행될 수 있다네. 그러나 몇몇 의식
은 지극히 성스러우며 꼭 신전에서
만 집행된다네.



7. 신전 인봉의 방에서 집행되는 결
혼은 침례 의식과 똑 같은 구원의
의식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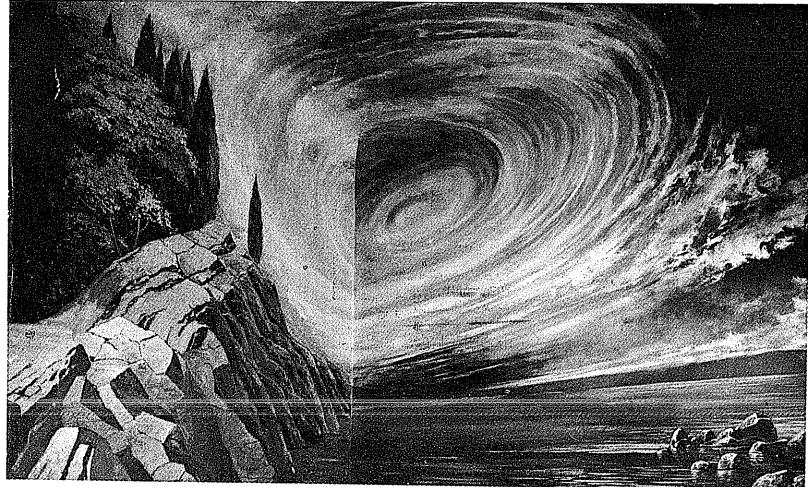
8. 자네들은 침례의 중요성을 알고 있
지. 구세주께는 우리가 구원의 의
식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셨고 또
실제로 모범을 보이기도 하셨네.
그러니까 선한 것 만으로는 충분하
지 않다는 말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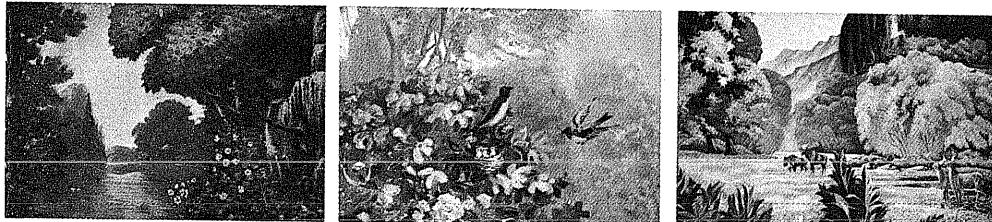
9. 자네들이 신전에 들어가면 곧 안
내를 받게 되고 우리들의 영원한
여행중의 중요한 행사를 배우게 되
네.



10. 세상의 창조에 관해서도 배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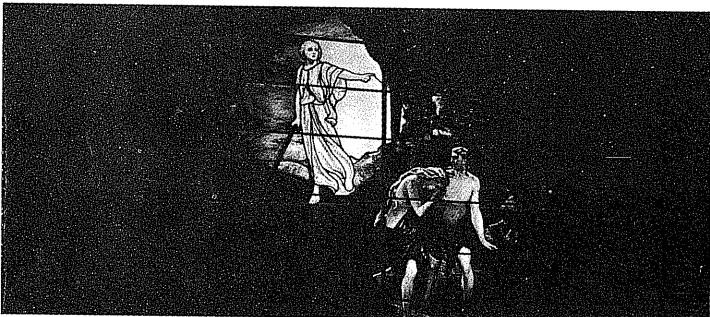
11.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았던 첫 부모에 관해서도 배운다네.



12.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다는 것도 배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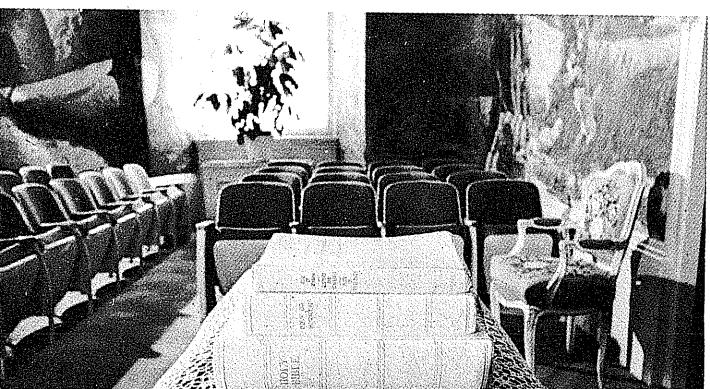
13. 그리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면전과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쫓겨나게 된 경위와 모든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게 된 사실을 배우는 결세.



14. 이곳에서 그들은 인생의 고난과 기쁨을 배우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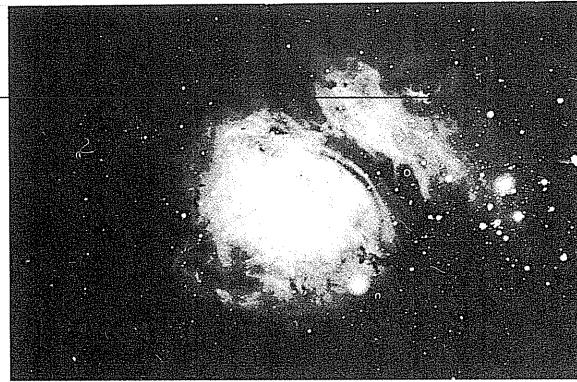


15.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온 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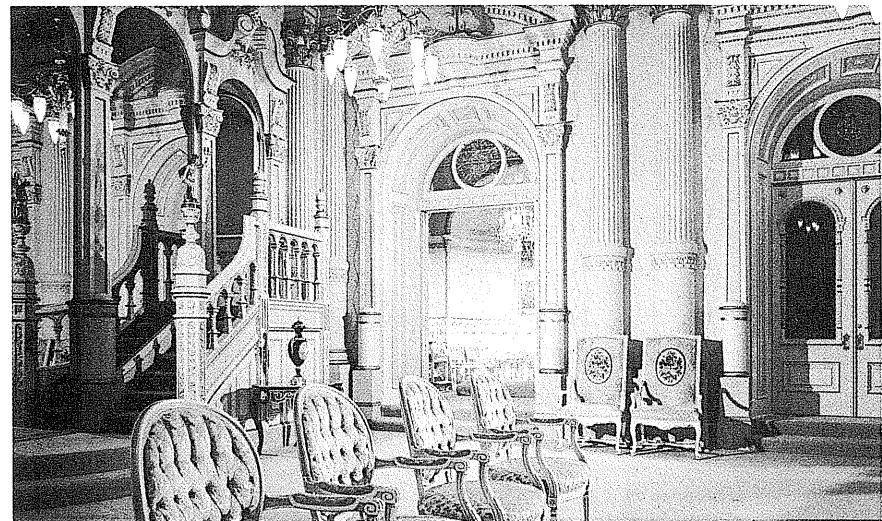
16. 이들은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성약을 맺었는데 이제 자네들도 그렇게 하게 될 결세. 우리가 이 성약을 열만큼 성실하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이후의 곳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이 결정되는 거라네.

17. 자네들은 영원한 세상에 영광의 왕국이 있다는 걸 배웠네. 이 세상에서의 행위에 따라 이 영광의 왕국중의 하나에 갈 수가 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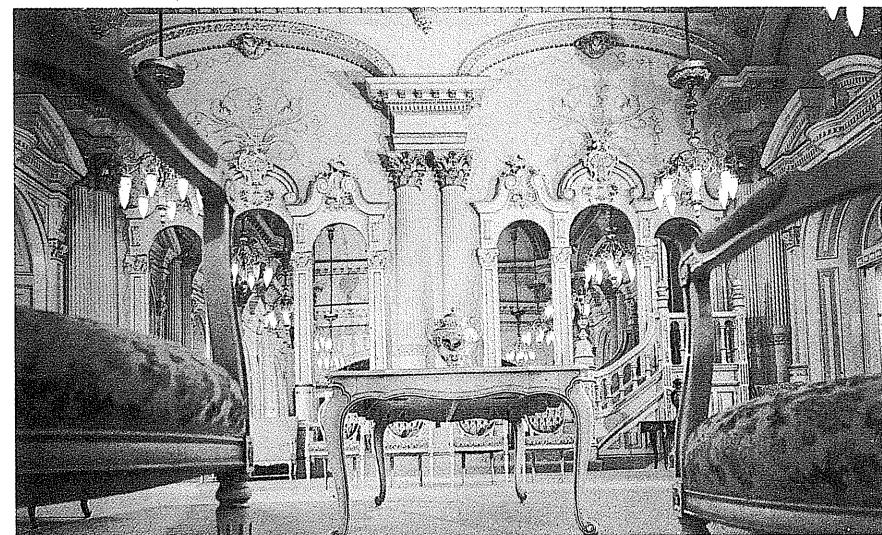


18. 복음의 목적과 신전 결혼의 목표는 두 사람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데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가하시는 최고의 보상인 승영을 쟁취하려는데 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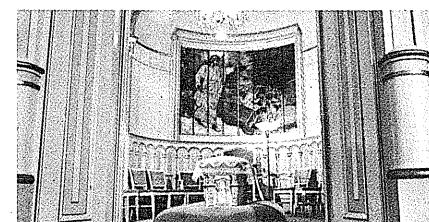
해의 영광의 방이 이 왕국을 상징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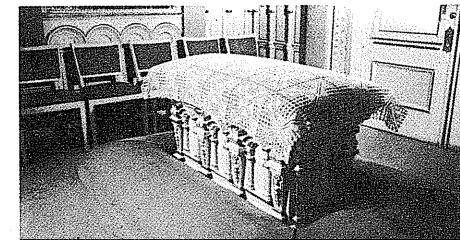
19. 해의 영광의 왕국에서의 승영이 중요한 것은 그 곳에서만 이곳에서 형성된 가족의 유대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일세.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는 영원한 여행의 길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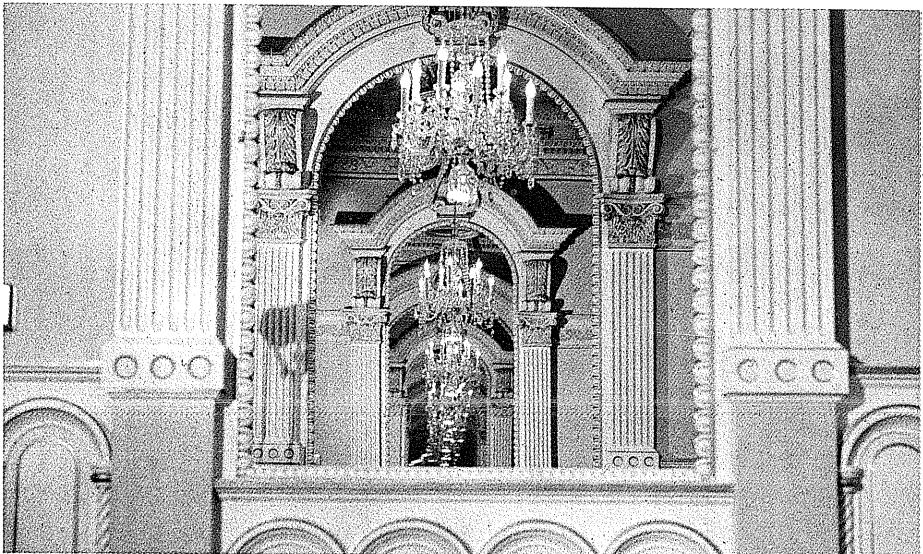
20. 자네들의 신전 결혼은 서로 서로에게 다짐하는 약속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성약일세. 그러니까 자네들은 각각 남편과 아내로서 성실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를 하나님께 약속하는 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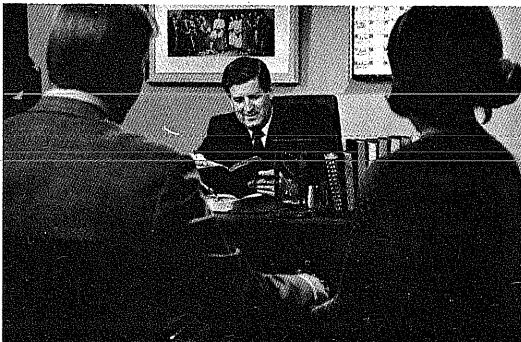
21. 자네들이 신전의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성 신권의 권세로 인봉되는데 이렇게 집행되는 결혼은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결속을 보장하게 되네.



22. 이 권세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의 유대로 결속시키네. 이 계획의 훌륭한 한 부분은 영원히 살면서 발전되는 고차의 사랑을 영유한다는 결세.



23. 교리와 성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해의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승영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네. 아울러 주님은 이 세상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데리 사업으로 신전 결혼의 의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에 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네. 주님의 말씀에 보면.



24. “그러므로 만일 어느 남자가 이 세상에서 아내를 맞아 들일 때 나나 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장가들어 그 남자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자기 아내와 서약하고 아내 또한 남자와 서약하면 저희 서약과 결혼은 저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효력이 없어 지나니,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떠한 율법으로도 저들을 결합된 것이 아니니라.”



25. “그러므로 저들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장가 들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고 다만 하늘에서 천사로 임명되나니, 이 천사는 저들보다 훨씬 더 높은 영광에 합당하며 훌륭하고 영원한 값있는 영광에 합당한 자들을 받아들여 봉사하는 종이니라.”(교성 132 : 15, 16)

26. 잘들 기억하게. 자네들이 함께 발전하면서 삶의 선한 것들을 추구하게, 서로 친절과 존경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 서로의 사랑이 계속하여 자랄 결세. 이 영원한 유대는 해의 영광의 왕국에서 누릴 승영의 큰 부분이 되는 결세. 물론 이 세상에서는 자네들에게 이해와 기쁨의 원천이 될 결세. 자네들의 사랑을 두텁게 하고 가정 생활을 보다 아름답게 하여 이 땅에서 미래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노력을 보다 값지게 할 결세.



티티에스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

스펜서 제이 콘디 박사
브리감 영 대학 사회학과
부교수

유토피아 근시

침판지를 이용해서 놀라운 동물 심리학 실험을 시도한 일이 있었다. 침판지를 방에 가두고 바나나를 그 안에 가득 넣어 주었다. 그런 다음 이제 막 침판지의 식욕이 서서히 둘기 시작하여 군침이 흘러나올 때쯤 그 바나나에 상자를 썩워놓고 침판지를 다른 방으로 데려간다. 침판지가 나간 사이에 상자 밑에 있는 바나나를 들어 내고 그 대신 상치를 그 상자 밑에 넣어둔다. 다시 침판지가 들어오면 성급히 방안을 서성거리면서 마침내 상자를 뒤집는다. 그리고는 그토록 걸망하던 바나나 대신 그곳에서 상치를 발견하고 실망한다. 그리하여 그 실망으로 피를 토할듯이 깨깨 소리를 지르며 상치를 갈기 갈기 쳇고 그것들을 짓밟는다. 그리하여 완전히 상치를 망쳐 놓는다.

재미있는 사실은 상치가 침판지가 바나나 다음으로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점이다. 사실 바나나와 상치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선택하도록 하면 침판지가 바나나 만큼이나 상치를

즐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침판지가 상치를 거부한 것은 그의 온 마음이 바나나로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침판지와 흡사하다. 저들은 이 세상이 저들이 원하는 완전한 세계가 아니라 하여 좋은 많은 것들을 거부한다. 말하자면 이러한 사람들은 “유토피아의 근시”가 되어 있는 것이다.

존 리비와 루드 먼로. 행복한 가정. (뉴욕, 루드먼로 리비, 1938) 179~180페이지

사고로 죽음을 당하기 수 개월전 (유타주) 남부 훌 리데이 스테이크 대회에 서의 케이린 퓨

나는 최근에 선교사업을 끝내고 돌아와 유타 대학에 복교한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가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을 때의 경험을 내게 들려 주었습니다.

랜더는 독일 선교부에 부름을 받았으며 독일어 봄본경을 읽는 것이 독일어를 배우는 최상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독일어 사전과 독일어로 된 봄본경을 사서 니파이 일서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얼마동안은 참 어려웠습니다. —전에는 한번도 독일어에 손을 뗀 일이 없었으니까요—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를 모두 사전에서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 나가는 동안 점점 언어와 친숙해 졌으며 봄본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거의 사전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

히 몰본경의 첫장을 뒤지게 되었는데 전혀 독일어를 이해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작자가 변경되었고 니파이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랜더는 그가 봄본경의 새로운 서를 열때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스미스가 봄본경을 저술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쓴 봄본경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번역하였다는 사실을 이로써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자기의 신앙 간증을 크게 강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다호 주의 틴 휠스 및 웨 스트 틴 휠스 스테이크의 종 교학원 졸업식에서의 리라 채드워크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계시다 합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교성 76:22-23)

이것이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이 이 세상에 전하는 간증의 말씀이다. 이제 이 분들처럼 예수는 살아계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중에는 그 분들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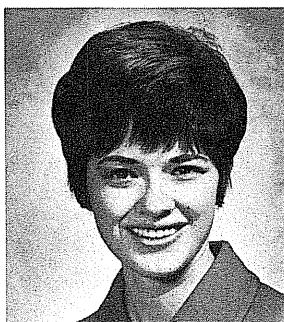
가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될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느낌으로 그러한 지식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바람의 감촉으로 보이지 않는 바람의 존재를 확인하듯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간증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간증을 얻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요, 임무라고 할 수 있으니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신권이라든가 철체 혹은 성신의 은사, 엔다우먼트, 영원한 결혼과 같은 축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간증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내게는 간증을 갖기를 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요셉 스미스나 시드니 리그돈만큼 분명한 확신을 갖기를 갈망합니다. 그는 그의 구속주가 살아계신 것을 알기 원하나 전혀 엉뚱한 걸에서 간증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네 내게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게. 그렇다면 내가 자네가 나가는 교회에 나가겠네.” 이와같은 성질의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출자로 밀을 탈려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옳바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혼

밀튼 아아르 헌터

칠십인 제일 회장단

●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사 이야기하는 바를 바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마는 죄악과 슬픔과 거짓으로 인류를 다스릴 셈으로 온 힘을 다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한마디로 요약하여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를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면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반비례 한다고 봅니다.

하루는 그리스도를 “시험”할 목적으로 어떤 율법사가 예수께 이렇게 물었읍니다.

“선생님이여, 율법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5-40)

구세주가 이 땅에 계셨을 때 히브리 경전은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 다섯 권은 율법서라 하였고 그 나머지는 예언서라 하였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에 답하실 때 구세주께서는 히브리 율법서인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한 사랑의 윤리위에 모든 히브리 경전의



가르침이 집약된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계명이 우리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로도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며 거룩하신 분들을 예배하므로서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요 14:15)고 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입으로 전해지는 모든 말씀에 죄아 살아야 한다.”(교성 84:44 참조)는 뜻이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는 온전하고도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분들의 이해와 예지가 우리들의 것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무한하신 까닭에 우리들을 향한 사랑 역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이 분들의 사랑이 아주 높은 차원에 까지 승화된 것이므로 경전에는 “하나님은 사랑”(요 1,4:16)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이나 느낌을 훨씬 초과하는 경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충만했을 때 비로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일면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영의 아버지 이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영생과 승영을 쟁취하여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계획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승영에 이른 사람은 비로서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초월한 위대한 사랑을 체험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단히 사랑하셨으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의 목숨을 바치셨으며 부활을 가져오게 하셨으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13)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털어 보아도 그리스도가 팔레스타인에서 보여주신 사랑이나 부활하신 후에 니파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베푼 사람은 적어도 이 우주에는 없습니다. 그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으며 소경을 보게 하시고 귀먹어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또 문동병차를 깨끗하게 낫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궁핍하고 고난에 처한 자에게로 향하는 따뜻한 사랑과 동정으로 가득 차 있었읍니다. 그는 저들을 깊게 이해하셨으며 영적으로 늘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이같이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우시니, 무리가 이를 보고 증거하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하심에 저들이 눈을 들어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마치 불에싸인 형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와 어린 아이들을 에워쌈에, 어린 아이들도 불로 둘러 싸였으며 천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더라.”(니 삼 17:21, 23)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어 고통과 아픔으로 사경에 이르렀을 때 참으로 위대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사랑입니다. 구세주께서는 그의 사도들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34, 35)

그리스도께서는 둘째로 큰 계명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모두 자기 중심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이웃을 우리들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웃을 우리들 스스로처럼 사랑한다면

저들과의 모든 거래가 친절로 이루어질 것이며 사랑과 관용으로 유대가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함은 사랑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편 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 켜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태복음 5:44, 45, 48)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특히 말일 성도의 남편과 아내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까요?

남편과 아내는 늘 친절과 온화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언어나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또 서로에게 깊은 사랑과 애정을 계속해서 보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상대의 삶에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편은 늘 아내에게 반려가 되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아내도 또한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행복하게 하고 서로의 위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서로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사랑의 표시를 하지 않는 날이 없어야 합니다. 상대가 이미 자기의 속마음을 알고 있으니 구태여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틀린 생각입니다. 한번은 내가 봉사하고 있는 곳에 죄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과 그의 아내 제시 스미스 자매가 영광스럽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스미스 자매님은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나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남편에게 남편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남편도 내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해를 넘기는 날이 결코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마치 한 여름의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릴 것이며 특히 하나님의 신전에서 신권의 권세로 맷어진 부부가 받게 될 축복은 더

클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는 이러한 부부의 사랑과 결혼을 하나로 결속하게 해 줄 것입니다.

데이비드 오우 메케이 대관장님께서는 늘 가정에서의 조화와 사랑을 강조하시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은 사랑을 바탕으로 영속하는 생명을 갖는다.”(행복에 이르는 길 [북 크래프트사] 114페이지)

“자제력의 가치를 배우라, 한번 입밖에 내지 않은 말에 대해서는 염려하거나 후회할 필요가 없다. 나는 자제력의 결핍이야 말로 불행과 불화의 주 원인이 된다고 믿는다. 우리는 우리가 짚어하는 것을 상대방에게서 발견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을 탓하기는 아주 쉽다. 그러한 탓하는 연사는 감정을 상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실을 미리 내다보고 격한 언행을 삼가 할 수만 있다면 짧은 시간안에 조화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데 있어서 혀를 다스리는 일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 이 이 점에서 실패를 하고 있다.”(같은 책 120페이지)

역시 사랑은 가정 생활에서도 모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자녀는 언제라도 자기가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특히 부모가 신경을 써 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시해야 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를 입증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영이 그곳에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가정에는 사랑이 기초가 될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초가 되어주신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도 부모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될 것이며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리는데 온갖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깊은 사랑으로 유대가 결속된 가정은 구세주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가정 전체의 목표로 삼을 것이며 언젠가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 돌아와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참 복음이 이 땅위에 다시 회복되었다는 사실과 구세주의 교회는 바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간증하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악 을 용 납 함

● 사람이 얼마나 쉽게 악을 용납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기만 하다.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분명히 사탄으로부터 비롯되었을 이러한 생각과 행위는 옛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납치 않았으나 현대에 와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두 가지 원리를 잠깐 살펴 보기로 하자. 그 한 가지는 거의 전 세계적인 유행이 된 아주 짧은 스커트의 용납이라고 하겠다. 미니 스커트와 도덕의 관계에 무엇인가가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은 나쁘게 보는 사람이 나쁘다고들 평한다. 물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교회에는 부인층, 짧은 여자, 그리고 많은 남자 역원들이 교회의 복장의 표준과 정책을 알고 있지만 어느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이러한 사조를 용납해 버린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예는 무척 심각한 것으로서 역시 많은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다. 글을 쓰는 사람, 영화와 텔레비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이 소위 표현의 자유라는 것에 편승하여 입으로 전위 예술 운운하면서 수 세기 전에는 용납하지 못했던 것들을 공공연하게 “근대”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발표하고 있는 사실이다.

세계의 문제로 등장한 이 문란의 문제를 우리는 주의 깊게 연구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성적인 충동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에는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사실 문란한 것에 참여하는 말일

성도는 실제로 사악한 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나쁜 행위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나쁜것이지만 또 다른 악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작은 악이라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음란한 서적이나 영화에 탐익한다면 큰 위험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너무 자명하지 않은가, 물론 부당한 일 모두를 판별해 내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9월5부는 알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교회 회원인 우리들에게는 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가 많다. 음화라던지 문란 서적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그렇다. 거의 모든 정부는 발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지극히 선정적인 물건 모두를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부도 있다.

미국 정부만 하더라도 매우 유동적인 태도로 임한다. 1957년 미국 정부는 음란에 관한 일체의 활동은 헌법에 규정된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시한 일이 있다. 음란이 무엇인지 를 확실히 규정짓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강력히 규제한 것 같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날 의아해 하고 있다. 이 세상에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사실적으로 음란마저도 보호 받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표면화한 것이다. 이전에는 악의 용납이라고 경계하던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움직임은 법적인 균거까지를 확보하려 한다. 대개의 경우 이런 것을 뒷 받침해 주는 균거를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

으로 이야기 하며 표현의 자유는 다른 어느것 보다도 중요하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려 듦다.

사회 문제를 이유로 삼았던 코메디언이 “민중의 자유”라는 말을 쓰므로서 현대의 어떤 사조를 하나로 괭집었다고 보겠는데 대개의 사람들이 오늘날 갈구하는 것은 사실은 헌법에 보호가 보장되어있지 않은 쾌락 추구의 자유라고 하는 사실이다. 그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사실대로 이야기 해 보자. 더러운 책은 흥미 진진하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값진 천부의 권리인 것이다. 말일 성도의 자유의 지론은 진리 탐구에 있어서 폭넓은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우리 모두가 완전 무결한 자유를 허가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이끌리지 않기를 바란다. 의무가 수반될 때라야 자유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치를 가질 수가 있다. 자유를 구가하므로 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면 그러한 자유를 허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음란물의 행상인, 말하자면 상업적인 영리에만 눈이 어두운 업자들은 사실상 사회를 위협하는 위험물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진지하게 인생의 문제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리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다.

민주 사회에서 주장될 수도 있는 음란한 사상의 주장과 그것들이 문자화 되었거나 영상화된 것을 탐익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다. ○

두째 번 기회

조셉 틸頓저

● 피곤한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제리 상병은 천막 구석에 놓인 목침대에 몸을 던졌다. 모두들 종전될 것이라고 떠들어 대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수시로 비상이 걸려오는가 하면 힘에 겨운 경계 임무도 아직은 대단한 기세로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었다. 목침대에 몸을 던지고 누워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또 염려도 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도 좋았다.

“야 목사” 친한 친구 슈밋트가 불렀다. 사실 그 목사라는 별명도 그가 지어준 것이다. “가서 식사 안할테냐?”

“조금 후에, 지금은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누워서 눈을 좀 쉬어야겠어”

“좋아, 어쨌든 밥이나 끊지 말라구. 브릴리 상사가 식사 끝 구령을 내리면 그대로 끝이다. 나는 먼저 세면장으로 갈테다.”

“씻고 돌아와서 나를 불러라. 그때 같이 가자”

슈midt가 자리를 떠났다. 제리는 눈을 감기가 무섭게 잠에 빠져들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비틀 걸음으로 일어섰다. 밖엔 이미 어둠이 덮혀 있었다. 슈midt가 깜박 잊고 그를 깨우려 오지 않은 것이다. 그는 소대원들이 모두 천막 저쪽 끝에 있는 카터의 침대에 몰려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어이 목사” 카터가 손짓을 했다. “제때에 일어났군. 너 오늘 손해 본 것 많다.”

“무슨 일이냐?” 그는 카터의 침대쪽으로 달아가며 물었다. 슈midt가 옆으로 비켜 서며 자리를 내 주었다.

“대장이 말씀이야 오늘 밤 이후로는 막사 내에서의 음주는 금지하라고 명령 했거든. 일중대 아이들이 오늘 판매권을 모두 반납했는데 우리도 그래야 다시 할당을 받을 거다. 그건 그렇구 방금 확인된 사실인데 캐리가 얘기 아빠가 되었다는 뉴스다.”

“축하한다. 얘기 아빠.”

“고맙다 목사”

“그리고 말야” 카터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 방금 귀향증을 받았다. 나흘만 있으면 출발이다.” “잘 되었다. 카터!”

“그래, 그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세가지 파티를 연거다. 목사, 와서 한 잔해라.” 카터가 술병을 쑥 내밀었다.

“고맙다. 그런데 난 안해”

“자 이리 와서 자! 목사! 아 내가 며칠만 있으면 떠나고 마는 데 넌 내 친구가 아니란 말이냐?”

“아니긴, 그렇지만—”

“이유는 집어 치워. 너 내 친구냐 아니냐 그것만 말해 봐!”

“그야 물론 친구지”

“그렇다면 한 잔 해라. 그뿐인가 캐리는 아빠가 되었겠다. 그렇지 않니, 목사 친구도 좀 아량을 보여야지, 이런 경사를 맞아서 어서 너의 그 인간성을 좀 보여다오”

“아 그렇구 말구 자 목사! 이 세상에 첫 번 아빠가 두 번 되는 사람은 없단다.”

“그래도 출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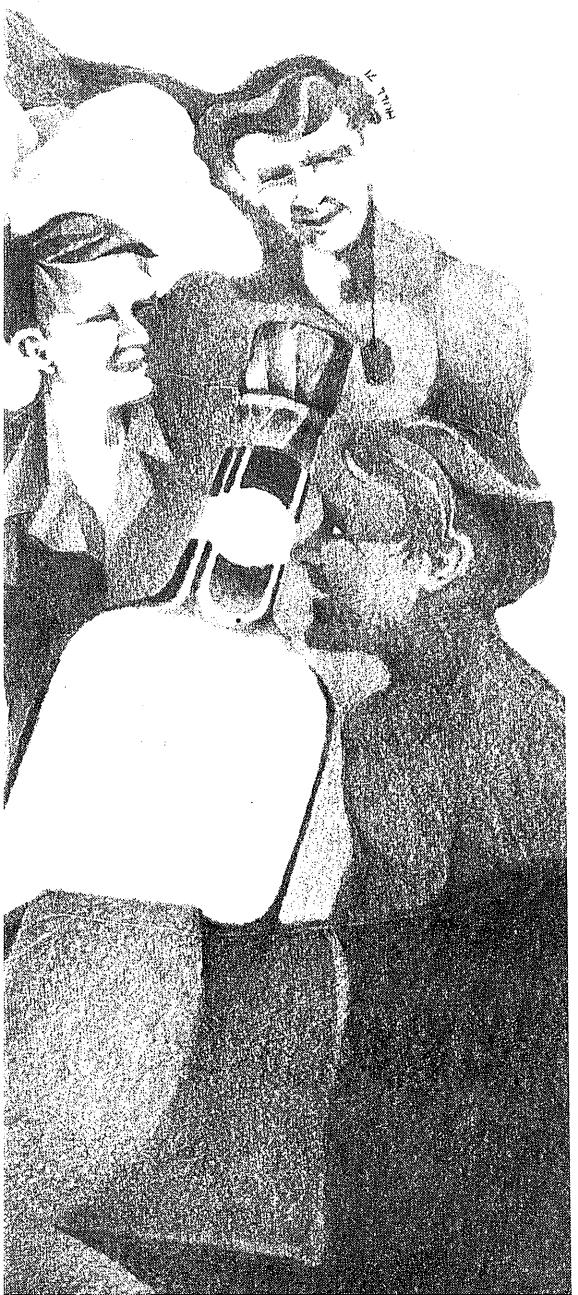
“어째서?” 카터는 스스로를 축하하는 뜻으로 한 모금 마시고는

병을 캐리에게로 넘겼다.

“그건 말이다. 내가 갖고 있는 종교의 가르침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야. 어쨌든 출은 인체에도 해롭다.”

“시끄럽다. 마치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을 외워 가지고 다니다가





대답하는 것 같구나. 너 그렇게 하는 것이 조그만 아이들이 시 나 부랭이나 졸졸 외우는 것 하고 다를 것이 없다. 해가 되지 않는단 말야. 내일 아침이면 완전히 네 몸에서 사라질 것이고, 너 이걸로 친구의 의를 버릴 셈이냐?” 카터는 손을 들어 친구 사이를 형용

하는 제스처를 했다. “자 모두들이 잔을 놓고 너와의 우정을 확인하기 원한다. 자 보여 주지 않겠니?”

대원들은 막사가 떠나 갈 듯이 그에게 소리를 질려 재촉을 했다. 가장 친한 친구인 슈밋트도 한 뜻 거드는 것이다. “와라 목사, 조금만 들어”

“그래 아주 조금만”

“도대체 이렇게 한다고 네가 죽니?”

“절대로 네 인생이 파멸되지 않을테니, 자 어서 너의 인간성을 보여라”

제리는 숫자로도 열세였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둘러선 전우 열한명은 군대 내에서 가장 친한 벗들이었다. 벌써 오 개월 여를 함께 생활했고 본국에서 출발할 때도 함께 출발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자기들의 고향과 가족과 여자 친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장래의 포부도 서로 털어 놓았었다. 이들은 또 다른 사회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협동과 상호 유대를 서로 서로 나누었던 것이다. 이제 제리 안드레가 이들을 등지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게 술병은 제리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는 술병을 들어 올렸다. 모두의 눈은 제리와 술병으로 쏠렸다. 그는 술병을 입에 갖다 대고 조금 입 안에 넣었다. 목으로 액체가 넘어가면서 은통 속에 불이 붙는 것 같았다. 그는 기침을 하며 고통의 눈물을 흘렸다. 주변은 죽은 듯이 조용했다.

“자” 카터가 반은 불신의 태도로 입을 열었다. “결국 안드레도 술을 먹었다.”

“그래” 캐리도 거들었다 “우리하고 조금도 다를 게 없어”

“안됐어 제리” 슈밋트도 한 마디 했다. “캐리의 말이 맞다. 너는 전혀 우리들과 다르지 않단 말이다.”

제리는 은통 속이 뒤 틀리는 것 같았다. 그때 그의 구름 지도자인 엘렌 소령이 막사 안에 서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싸늘하게 보였다. “나는 네가 다르다고 생각했다. 제리 정말이다.”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그는 차라리 갈망하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게 한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아니 이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요. 잊으세요!”

“이 사람들은 아무도 잊지 않을거다. 너는 분명히 다른 사람과는 달랐어. 그런데 지금은 똑같단 말야. 네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다른 대원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합리화 할거다. 결국은 네가 저들의 변명이 될거야”

“아닙니다! 결코 이런 결말을 원한건 아니었습니다. 일이 있기 이전으로 돌아 가고 싶습니다!”

“돌아가지 못해, 제리. 오직 전진만이 있는 사실의 세계로 깨어나라!”

“일어 나!”

그는 벌떡 일어났다. 슈밋트는 아직도 물기가 있는 윈쪽 발을 챙고 있었다. “너 아주 끊어 떼어 졌었다. 목사, 오분 후면 식사 끝이다. 뛰어가면 식사는 얹어 먹을 수 있어, 너 왜 잘때 이를 갈았니? 네가 나한테 읽으라고 준 책 좀 읽어야 겠어, 그 책에 너처럼 결구가 되는 비결이라도 적혀있니?” ○

“의로운 자가 되는 길”

● 말일에 회복될 복음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온 형제 자매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들의 생활을 주관하고 계심을 강하게 증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시온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길은 먼저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심령에서 시작하여 가족들이 서로의 사랑에 감사하고 자기가 받는 물질적인 축복에 감사하고 교회 생활의 부름에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고, 자기의 생업에 감사하며, 자기 자신에게 지혜와 지식을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차 있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화평스럽고 우리들의 얼굴모습은 기쁨과 행복에 차서 대하는 사람들에게 환희와 소망을 주는 의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일찌기 의로운 사람들은 남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읍니다. 남의 것으로 자기의 선심을 얻을 것이 아니고 교묘히 남을 비방하고 자기의 심경을 만족할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비판 받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소유를 남에게 주기를 즐겨했던 시대 사람들을 구약 성서는 비교해주고 있읍니다. 아브라함은 준 사람이고 룻은 받은 사람이었읍니다. 그 후 누가 복을 받았읍니까? 룻이 당한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읍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읍니다. 산골짜기 나쁜땅을 차지한 아브라함은 많은 복을 받았읍니다. 일언이 폐지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잘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원리대로 남을 주는 생활을 힘써하면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옛날부터 유명한 위인들은 빼앗고 얻은 사람이 아니고 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동아의 공, 맹은 우리들에게 도덕의 표준을 주고 간 사람이 아닙니까?

소크라테스는 좋은 철학과 생활의 표준을 주고 간 사람이요, 뉴우튼과 에디슨은 우리들에게 많은 문명의 이기를 발명해서 주고간 사람들임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비단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신권의 권능으로 통치되는 이 참된 주님의 왕국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이 늘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로 살고 있으며, 자기들의 시간과 정력과 재능과 재물을 주님께 받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남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주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복음의 계명에 복종하고 신권 지도자의 지시와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태도는 성서의 많은 곳에서 또한 축복으로 약속하고 있읍니다.

구약성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제사보다 순종이 나음을 말한 바 있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신앙 생활을 할때 사탄의 제자가 되지 않고 그가 계시한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성서를 통해서 우리의 죗愆을 울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안에 있으라,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하고 우리들에게 명하신 말씀에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부라운 선교부장님께서는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하여 진지한 간증으로 말씀하시기를 확정되어 실천하기로 한 계획과 우리들의 신권지도자의 권고에 반대의 뜻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결코 성신은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남에게 복음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과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자기 구원의 승리자가 될뿐만 아니라 남보기에 낫은 자 같으나 주님께서는 크고 높은 곳에서 유품으로 준비한 자리 를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의 생활에 의로운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

여러분의 신앙의 형제,

박 재 암

선교부장단 제2보좌

